

---

# 2017년도 KICCE 연차보고서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7 ANNUAL REPORT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  
2016  
2017

# Contents

## I 연구소 소개

- 006 설립목적
- 006 주요기능
- 007 경영목표
- 008 연혁
- 010 조직도
- 011 일반현황

## II 2017년도 주요연구

### 기본연구

- 014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016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018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 020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III):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022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V)
- 025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 02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 029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 032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 03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 036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 038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 040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연구

### 일반연구

- 042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의 내실화 방안
- 045 누리과정 성과 제고를 위한 교사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048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
- 050 누리과정 평가와 향후과제
- 05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 056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 059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 061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 063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 065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I )
- 068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  
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 위생 관리 실태 분석
- 07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 수시연구

- 072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 074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 076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 개발
- 078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 080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 082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 084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 방안
- 086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 088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090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 I ):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 09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 III 2017년 주요활동

### 주요행사

- 096 육아정책 심포지엄
- 097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 098 국제세미나/간담회
- 099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 100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101 출산·육아 지원 포럼
- 102 제5대 소장 취임식 및 열린토론회
- 103 유관 연구기관과의 교육포럼 공동 개최
- 105 업무 협약(MOU) 체결

### 주요 간행물

- 106 Issue Paper
- 108 육아정책연구
- 111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CEP)
- 114 육아정책포럼
- 116 육아정책 Brief
- 117 KICCE Policy Brief
- 118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IV 2018년 추진계획

### 2018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22 2018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123 중점연구사업

### 2018년 사업개요

- 125 기관고유사업
- 128 일반사업
- 130 2018년 연구사업 총괄표



2017년에는 영유아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구축,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육아지원의 내실화 및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행복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내·외부적으로는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05년에 설립된 이래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여러 국가의 유관기관 및 OECD, UNESCO, UNICEF 국제기구들과 MOU 체결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활발한 국제교류와 학술활동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아동의 행복과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육아정책기관”이란 비전 아래 새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연구, 영유아의 건강·안전 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연구, 가정내 양육 및 부모교육 연구, 돌봄취약계층 연구, 육아물가지수, 한국아동패널 연구 등의 기본과제와 일반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처가 긴급하게 요청하는 수시과제 및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수탁과제들을 수행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사회를 실현하는 육아정책연구의 플랫폼”이란 비전 아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재정 조달·분석 연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 돌봄취약계층의 육아지원연구,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 동아시아 육아정책 비교분석 연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역사상 유례가 드문 정치·사회적 불안정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2017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육아정책연구소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과 사명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행복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의미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내·외부적으로는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백 선 희**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  
ANNUAL  
REPORT**

# I

## 연구소 소개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육아지원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  
한국 육아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주요기능  
경영목표  
연혁  
조직도  
일반 현황

# 설립목적

## PURPOSE OF ESTABLISHMENT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 연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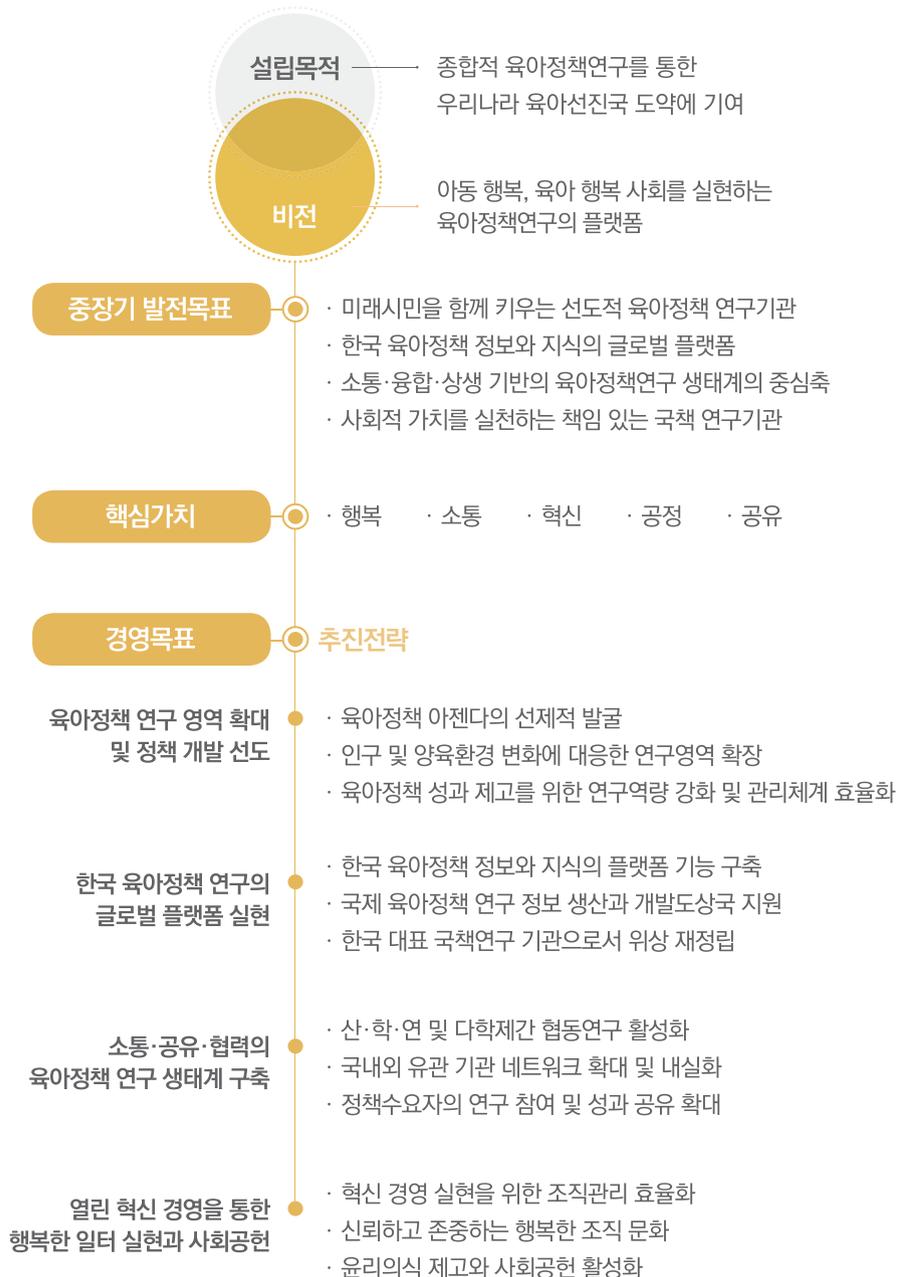
## MAIN FUNCTION

- 1 육아정책 방안 연구
- 2 육아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3 육아지원 기관의 평가 및 자문
- 4 육아지원 인력의 자격제도 관리 및 교육
- 5 육아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자료의 공유 및 관리
- 6 육아정책 관련 국제 협동연구 및 교류 협력
- 7 정부의 육아정책사업 지원

# 경영목표

# MANAGEMENT GOALS

아이 행복, 육아 행복의 대한민국,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육아정책의 발전과 영유아의 행복을 위해 지난 13년간 힘차게 내딛어온 걸음,  
국가미래를 향한 도약은 계속될 것입니다.

## 2005

- 2005. 08. 17.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운영 방침 결정 (국무총리주재 제118차 회의)
- 2005. 09. 29.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관련 3개 연구기관 정관 개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공동부설센터)
- 2005. 09. 30. 육아정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5. 11. 09. 이옥 소장 선임
- 2005. 12. 26. 개소식
- 2005. 12. 28. 보건복지부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업무 위탁

## 2006

- 2006. 12. 28.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 업무 위탁

## 2008

- 2008. 09. 05.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관련  
규정 개정으로 협력기관을 2개로 조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부설센터)
- 2008. 10. 31. 조복희 소장 선임

## 2009

- 2009. 12. 30.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 2009. 12. 30. 보건복지부 2개 사무국  
업무 위탁 종료

2010~  
2011

2010. 01. 26.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  
선진화사업지원단 업무위탁

2011. 10. 31. 이영 소장 선임

2012. 10. 26. 창립 7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2012

2014

2014. 09. 17. 국무조정실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업무지원을 위한  
'유보통합지원단' 발족

2014. 10. 31. 우남희 소장 선임

2015

2015. 02. 09. 서초동 외교센터로  
청사 이전

2017

2017. 12. 08. 백선희 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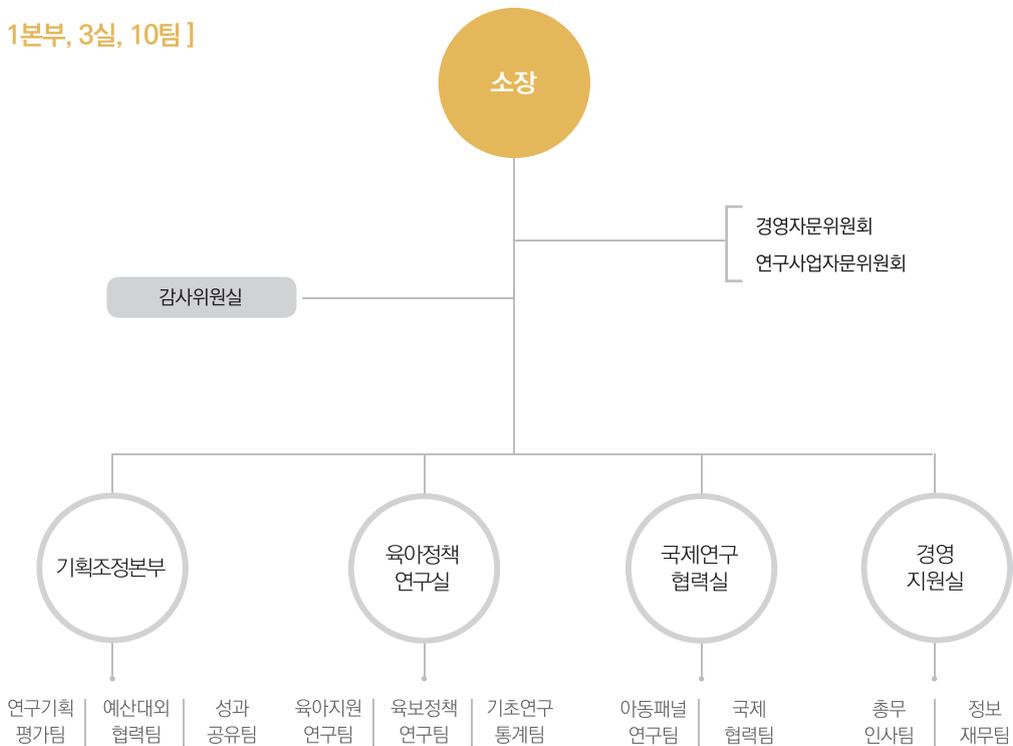
2017. 12. 19. 백선희 소장 취임식,  
제1차 열린토론회 개최

# 조직도

# ORGANIZATION

연구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는 1본부, 3실, 10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1본부, 3실, 10팀 ]



## 경영자문위원회

- 김교성(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
- 김태현(아태인구연구원 원장)
-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성영준(SBS 시사교양본부 사회공헌 국장)
- 신성식(중앙일보 논설위원)
- 오현석(이산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 이수연(한국워킹맘연구소 대표)
- 이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미라(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가나다 순

## 연구자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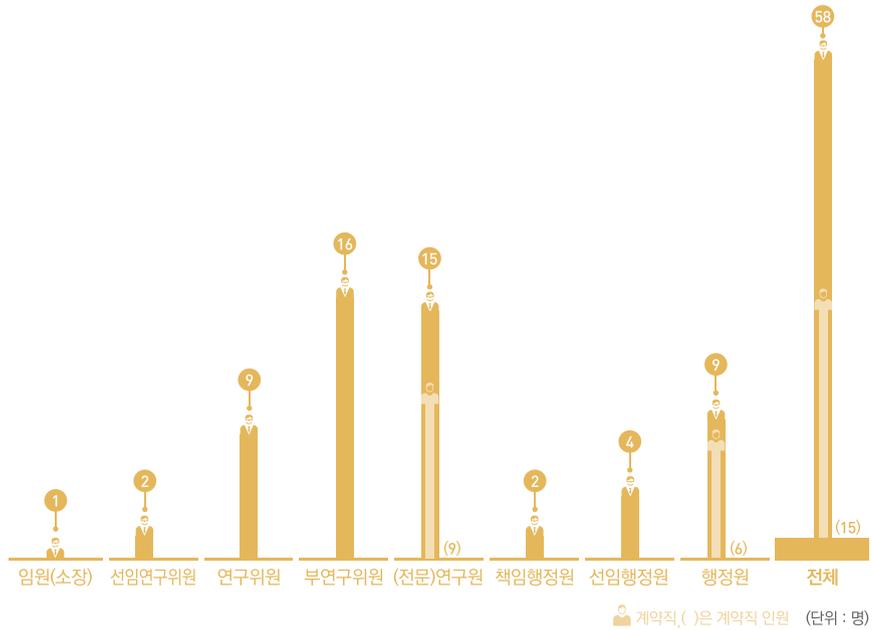
- 강선미(하양성젠더연구소 소장)
- 김우칭(카이스트대학교 교수)
- 김종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미옥(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손인숙(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윤홍식(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삼식(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 이원재(lab2050 대표)
-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진주(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 조부경(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지성애(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성미애(방송대학교 생활과학과 가족학과 교수)
- 허선(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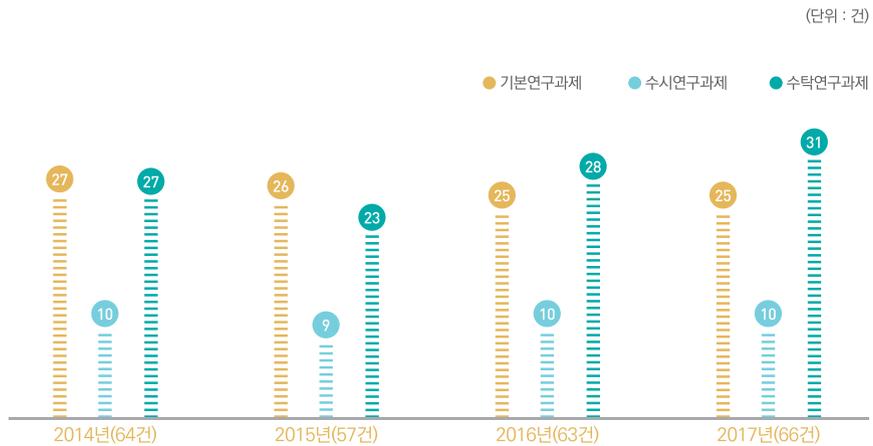
# 일반현황 (2018. 04. 30. 기준)

# GENERAL

[인원현황]



[연구현황] \*연구시작일 기준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  
ANNUAL  
REPORT**

# II

## 2017년도 주요연구



국가 육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관련 기본, 일반, 협동, 수시, 연구개발적립금, 수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

일반연구

수시연구

연구개발적립금연구

#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

##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됨.
- 지난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전략, 소요 예산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관련 통계현황, 교육부 내부자료 및 유관 국내의 문헌 분석
- 다부문 전문가 자문 및 심층면담: 과학기술, 문화예술, 가족사회학, 경제, 교육일반 분야 등
- 설문조사 실시: 1)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전체 공무원, 총 134명(남 51.2%, 여 48.8%; 20대-50대, 각 연령대별로 유사하게 분포)
- 지역별 워크숍 개최: 중앙 및 지역별 담당공무원과 교원 25명 내외, 서울(서울, 경기, 강원지역 포함)과 대전(충청, 경상, 전라권 포함)에서 총 2회 개최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 연구결과

### 미래 유아교육 환경 변화 전망

- 저출산 고령화, 가족형태 및 가족생애주기의 변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성교육의 중요성 재조명, 가정에서의 양육과 학습 환경 및 부모교육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 요구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유아기 학습환경 개선 및 교사 역량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요구 상승

### 2013-2017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25개 핵심과제 추진실적 평가

- 2개 핵심과제(유치원 운영 효율화 분야의 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분야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만 하위 세부과제를 모두 달성, 그 외 나머지 23개 핵심과제는 부분달성으로 평가됨.



### 유아교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및 요구 분석

- 향후 유아교육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 교육청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유아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선정한 것과 달리, 일반국민은 출산율 증대를 위한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함.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우선적 추진과제로 일반국민과 교육청 공무원은 동일하게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1, 2순위로 응답함.

## ● 정책 제언

### 향후 유아교육 6대 핵심 정책과제 제시

- 1) 보편적 유아교육 완성, 2) 질적 격차 해소를 통한 유아교육의 형평성 제고, 3) 개별유아 요구와 지역사회 의 특성을 반영한 누리과정 운영, 4) 부모의 양육지원 강화 및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5) 유아교원 및 지원인력의 확충과 전문화, 6) 지역의 유아교육 지원기반 강화

### 유아학비 소요예산 추계

- 2018년 유아학비 총액은 3조 6,815억원임. 원아 수 감소에 따라 소요재정은 매년 1,000억원 이상 감소하여 2022년에는 3조 2,17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18-2022 보육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이정원, 이윤진B, 김희수

### ● 배경 및 목적

- 영유아보육법은 매 5년마다 국가수준의 보육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17년 종료되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2017)'을 대체할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자료의 산출과 정책 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방법

- 선행 보육계획, 보육 통계, 선행 연구를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함.
- 과거 보육 정책 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해 관련 학계 및 보육현장전문가 45사례 대상 전문가 조사 및 20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 대상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연구결과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및 정책 평가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내 자체 평가지표 달성도 검토에 따르면, '부모 보육·양육부담 경감'분야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분야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부분은 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 결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의 달성도가 가장 높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목표의 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부모는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추진으로 양육비용 절감에 대한 체감도는 비교적 높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에 대한 요구

- 전문가들은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 환경으로 '저출산·고령화'의 환경,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가', '아동행복과 권리 중심 접근 요구 증대', '사회구성원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가족 구조의 다양화 추세', '직장, 가정에서의 양성 평등 환경 조성 요구 증대'에 대한 높은 동의를 보임.
- 전문가 조사 결과,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아동행복 우선)'을 방향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음. 단, 부모들은 국가 책임 보육과 가구소득 무관한 무상보육 지원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들은 24개월 미만 영아는 가정양육, 25개월 이상부터 기관 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녀 연령별로 이상적인 양육 형태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보육정책 과제에 대한 요구

- 향후 보육정책을 위한 추가 과제로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보육 체계 구축', '행복 육아를 위한 부모 역할 지원', '보육 수요 변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 개선', '아동양육·보육정책 간 정합성 제고', '보육지원의 형평성 제고'의 5개 과제가 제안됨.

## ● 정책 제언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보육 비전'으로 '아동 행복, 부모 신뢰, 교사의 자긍심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을 제안함.
-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강화', '부모의 행복 육아 실현', '교사의 비전과 자긍심 제고', '보육의 국가 책임 실현'을 제시함.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반영의 필요성이 높은 8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제안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이윤진A, 이정림, 임준범

### ● 배경 및 목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개 부모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실제 교육의 참여율은 낮음.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주목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 및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실화방안을 모색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함.
- 주요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로써, 상기 3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 757명, 부모교육 실무자 114명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 연구결과

#### 부모교육 정책현황

- 공교육단계인 초·중학교 학부모 정책의 최근 동향은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강조하면서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정책은 참여권 보장 강화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부모교육 대상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고 있음(영유아보육법 '보호자의 교육' 신설).
- 2017년 6월 기준 유아교육진흥원 14개, 육아종합지원센터 76개, 건강가정지원센터 161개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 표준화된 부모교육인 '클로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부모교육 실시 현황 및 참여 부모 수는 증가추임.



**부모교육 참여실태 및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부모**

- 상기 3개 기관의 부모교육 이용목적은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49.8%) “양육정보를 얻으려고”(40.6%)(중복응답 결과)이며 이용기간은 평균 2년 5개월로 장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도 76.7%가 참여함.
- “맞춤형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희망하며(58.8%)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64.6%의 부모가 “타당하다”고 응답함.

**부모교육 운영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실무자, 원장**

- 상기 3개 기관의 실무자 대상 조사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은 이유 1순위는 “교육내용이 유익해서”(41.2%)이며 낮은 이유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23.7%)로 나타남.
- 원장 대상 조사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참여도가 높은 경우, 그 이유는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68.4%)이며 반대로 낮은 이유는 “부모들의 낮은 관심”(42.6%)을 가장 많이 꼽음.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실무자의 70.2%, 원장의 71.0%가 “타당하다”고 응답함. 활성화 방안으로는 부모조사와 동일하게 “맞춤형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꼽음.

**● 정책 제언**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3개 집단 모두 긍정적 응답이 많았으나, 의무교육·보육단계가 아니고 국외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부모교육 관련 법률 정비 및 영유아보육법 ‘보호자의 교육’의 시행규칙 제정 필요
- 최근 신설한 공무원 복무규정 특별휴가에 ‘부모교육’을 추가하는 등 정부 지원 강화 필요

##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III):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영, 김근진, 윤지연, 김민지, Chiu Chih Peng, 정광희, Sajaniemi Nina Kristiina

### ● 배경 및 목적

- 조기 사교육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교육의 시작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원인을 사회적 맥락에서 찾을 필요가 있음.
- 우리와 유사한 사회적 배경과 제도를 가진 아시아권 국가와 더불어 우리와 다른 사회적 배경과 제도를 가진 비아시아권 국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 연구방법

- 설문조사: 한국 316명, 일본 249명, 대만 354명, 미국 301명, 핀란드 216명의 2~5세 학부모 총 1,436명의 응답을 분석함. 설문조사 내용은 자녀관, 양육관, 교육관, 자녀의 하루일과, 자녀의 사교육 실태, 공교육 이용 현황, 사교육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비롯하여 영유아 사교육 최초 경험 시점, 사교육 종류 및 수, 사교육 시간 등 사교육 관련 실태를 포함함.
- 사례조사: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의 영유아 부모 각 4인(2세, 5세 부모 각 2인)으로 총20인을 대상으로 함. 조사내용은 사례조사 대상 유아에 대한 하루일과 기록을 기초로 사교육 및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가치와 기대, 양육관 및 교육관, 사교육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자문회의 및 워크숍

### ● 연구결과

#### 생활시간

- 2~5세반 영유아의 기상시각은 일본, 미국, 핀란드, 대만, 한국 순으로 빠르게 나타나며, 취침시각은 핀란드, 일본, 미국, 대만, 한국 순으로 빠름.
- 한국 영유아들은 5개국 가운데 학습시간과 TV, 인터넷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며, 기상과 취침 시간도 상대적으로 늦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음.



### 자녀 가치 및 기대

-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회성'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기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핀란드 부모 모두 전문직이었으며, 두 번째로 한국은 예술가·체육인·연예인, 일본과 대만은 사무·기술직, 미국과 핀란드는 경영관리직으로 나타남.

###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

- 한국은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으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보육기관 이용비용과 부담이 낮음.
- 한국은 특별활동을 많이 이용하고, 특별활동으로 외국어 비율이 높음. 비용은 한국이 가장 저렴하고 부담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이용 현황

- 사교육 이용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5개국이 대동소이함. 다만 한국은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은 5개국 중 사교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미술, 다른 4개국은 체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

### 교육에 대한 인식

- 국가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시기에 대해 한국, 일본과 핀란드 부모는 초등학생 시기, 대만과 미국 부모는 영유아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충분성에 대해 핀란드 부모의 약 65%는 지원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부모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음.

## ● 정책 제언

- 사회복지·노동정책 측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유아의 놀 권리 확보, 부모의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양육 역량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통한 부모의 개별적 욕구 충족
- 교육정책 측면: 대입정책 개편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신뢰 회복, 사교육 방향 전환을 통한 역할 변화 선도, 유아교육 혁신을 통한 영유아의 삶의 질 제고
- 국민인식개선 측면: 정부주도의 캠페인을 통한 부모 인식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 인식 개선

##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V)

김나영, 최윤경, 강신혜

### ● 배경 및 목적

-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 물가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 따르면, ‘본인의 자녀가 없어도 됨’이라고 응답한 기혼여성(15-49세)은 1,168명인 것으로 조사됨.
- 그 이유를 조사하였을 때, 응답자 중 29.4%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경제적으로 자녀양육이 곤란하다’는 이유가 차지함.
- 이는 개별 가구에게는 자녀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즉 양육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는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육아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함.
- 이러한 모니터링은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관리 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개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분석을 통하여 육아물가지수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함.
-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해 유통채널 온·오프라인 가격조사, 영유아 육아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조사를 진행하고, 영유아 부모의 체감지수 산출을 위해 리서치 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체감물가지수를 실시함.
- KICCE 육아물가지수의 5차년도 연구로서 1~5차년도의 연구를 종합하여 육아물가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봄.

## ● 연구결과

### 육아물가지수 산출

- 소비자물가지수의 육아품목을 활용한 육아물가지수(I)의 경우, 유아복이 3.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유아학습교재가 3.12%상승률을 보임.
- 육아물가지수(II)의 산출 결과를 보면, 상승률이 가장 큰 품목은 유모차로 전년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54.22%로 나타나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음.
- 육아물가지수(III-1)에서는 2016년 대비 지수 상승폭이 컸던 품목은 유모차(27.26%), 아기띠(26.78%), 육조(19.10%), 외출복(15.05%)으로 나타남.
- 육아물가지수(III-2)를 보면, 2016년 대비 감소폭이 컸던 품목은 유치원추가비용-31.65%, 칫솔-26.63%, 물티슈-18.37% 순으로 나타남.

### KICCE 육아물가지수 추이 분석

- 육아물가지수(II)의 총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0.35에서 2014년 98.28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7년까지 이어져 2017년에는 113.00의 지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년대비 12.16% 증가한 수치임.
- 육아물가지수(III-1)의 총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122.88에서 2014년 97.01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3.81%(100.00→103.81)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7년까지 이어져 육아물가지수(III-1)가 115.92를 나타냈음.
- 육아물가지수(III-2)의 총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다른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2013년 120.95에서 2014년 98.48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0.26%(100.00→100.26)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7년까지 이어짐.
- 전반적인 육아물가지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6 가중치를 사용하여 2015년 물가를 기준으로 작성해 봤을 때, 최초 지수 작성시기였던 2013년에서 이듬해 2014년 기간의 큰 폭의 지수감소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육아품목의 물가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 정책 제언

- KICCE 육아물가지수 산출을 위한 육아품목 선정을 정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연(월)령에 따른 지출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경우 조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성과는 있었으나 5월 1회의 조사만 이루어진 점은 향후 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교육·보육기관 서비스 비용에 대한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육아물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아품목의 가격안정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최근 자녀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 육아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 가격의 변동성이 전체 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다른 물가지수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전국 규모로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육아물가지수 자체에 대한 산출과 분석에서 더 나아가 관련 산업분야의 성장과 변동을 연계한 연구가 필요함.

#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양미선, 이윤진B, 장문영

## ● 배경 및 목적

- 영아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어려움을 살펴보고, 영아반 교사의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하여 영아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단·중장기 방안을 제시함.

## ● 연구방법

- 국내 선행연구, 관련법 및 제도 등을 고찰하고,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과 DW에 탑재되어 있는 어린이집 운영 자료를 분석함.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원장 500명,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47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연구결과

### 영아반 운영 시 애로 및 요구

- 1개반 이상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은 2016년 말 기준 총 40,233개소, 전체 어린이집의 97.9%임.
-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종일반은 2017년 3월 기준 70%, 맞춤형은 30%를 차지함.
-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일과를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54.3%이고, 나머지는 일과를 조정함.
- 맞춤형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행정업무 증가 80.8%, 보육료 수입 감소 84.1%, 일과 운영 22.2% 순임.
- 영아보육 컨설팅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13.3% 정도이고, 2017년 내에 계획이 있는 경우는 15.0%임.

### 영아반 담당교사의 반 운영 현황 및 애로

- 맞춤형 하원 후 종일반은 36.2%는 연령 혼합반, 33.1%는 반별, 28.8%는 연령별 통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영아보육 담당교사 중 90.9%가 영아보육 직무교육을 이수하였고, 이수자 중 76.1%는 온라인교육, 36.3%는 집체교육을 수료함.
- 영아반 보육교사 중 34.2%만 근무환경개선에 만족하고, 불만족시 희망하는 적정수준은 34.9만원임.
- 영아반 보육교사 중 93.6%가 근무환경개선에 외 추가 수당을 받고, 금액은 평균 288.9천원임.



-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보육교사 71.7%가 동의하고, 동의정도는 평균 2.9점임.
- 영아반 담당교사 중 37.4%가 초과근무를 하였고, 주당 평균 2.5회, 1일 평균 1.4시간임.

## ● 정책 제언

-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원장의 영아보육 직무교육 의무화
- 영아보육 직무교육 교육내용 내실화 및 대면교육 강화
- 영아 혼합반 운영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보육인력 교육이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교사에게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알리고, 교육 신청 및 접수, 이수증 발급, 교육 안내, 교육이력서 발급 등의 기능 제공
-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2022년까지 매년 2만원씩 올려서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개선비는 10만원까지 인상
-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및 운영기준 마련, 보조교사 직무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영아보육 컨설팅 확대 및 지원, 어린이집 유형이나 지역, 담당 연령반 특성에 따라 컨설팅 방법이나 내용 차별화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을 현행 30% → 40%, 80% → 70% 로 조정

##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이재희, 김근진, 엄지원

### ● 배경 및 목적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 연구방법

-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정책자료 수집
- 아동 60명과 부모 6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면접 실시
- 한국아동패널 4차-8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과 후의 부모 및 아동의 가정생활 변화, 취업모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 연구결과

#### 초등학교 취학시기 발달특성과 초등학교 전이

- 초등학교 입학 시기 아동은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
-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를 위해서는 아동은 물론, 학교와 가족의 준비와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초등자녀 양육지원정책

- 초등돌봄 정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있음.
-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예비 학부모 교육은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교육청, 지역학부모센터 등에서 제공되고 있음.
- 초등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지원 정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고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국외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전이 지원 정책

- 아동의 연령 만 6-11세 기준으로 OECD 국가중 센터기반 방과후 돌봄서비스 참여율이 70%가 넘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이었으며, OECD 평균 참여율은 30% 수준이었음.
-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유-초연계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예비학급, 유아학급 개설 등 구체적인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됨.

####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가정생활 변화와 아동의 학교 적응

-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일과 시간의 가장 큰 변화는 방과 후 돌봄 시간의 증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일 경우에는 방과후 돌봄시간이 0.85시간이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 2.51시간으로 증가하였음.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리고,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며, 상용직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일-양육갈등은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해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정책 제언

- 부모와 아동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정양육 내실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초등학교 입학 후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입학자녀 돌봄 휴직 제도 개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함.
-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도 필요하고, 입학에 필요한 정보 등이 공유되기 위해 지역 학부모와의 멘토링 제도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방과후 돌봄 공급을 증대시키고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 행정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 아동의 학교 적응과 전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 유-초연계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 및 전이를 위해 놀이 및 여가활동위주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이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조숙인, 권미경, 이민경

## ● 배경 및 목적

- 아동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놀이에 대한 인식 부족, 전자매체 기기 사용 생활화, 안전한 놀이 공간 부족, 학습 중심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제한됨.
- 놀이 실태를 조사한 선행 연구는 영유아 대상 혹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중심이어서 유아와 초등 저학년 대상의 놀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관점을 담은 연구가 부족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의 놀이 환경 및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외 잘 조성된 놀이 환경을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 놀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임.

## ● 연구방법

- 문헌 및 온라인 자료 수집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 면담 실시
- 놀이 환경 국제 동향 파악을 위한 국외 출장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 연구결과

### 자녀의 놀이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 설문 응답자: 유아(만3~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 350명, 초등 저학년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 356명 총 706명
- 놀이 개념 및 효과: 놀이는 즐거움, 신남, 행복으로 개념화 되지만, 여전히 자녀의 놀이가 발달에 도움이 되고, 무언가 배우길 바라는 어머니들의 양가적 마음이 존재함.
- 놀이 대상: 함께 놀이를 즐기며, 형제자매, 어머니, 또래친구와 함께 많이 놀이함. 유아가 특히 가족과 함께 놀이하는 경향 있음. 아버지는 신체 활동 놀이에 적극 참여함.
- 놀이 시간: 주중보다는 주말에, 실외 놀이보다는 실내 놀이를 더 오래 함. 실제 미디어 활용 놀이 시간이 하루 평균 약 177분으로 이상적인 미디어 활용 시간 약 121분보다 길게 조사됨.

## ■ II. 2017년도 주요연구 기본연구

- 놀이 공간: 주 놀이 장소는 집(72.2%)이고, 놀이터 공원은 18%에 불과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의 이용 빈도가 높으나 이용 만족도가 떨어짐.
- 놀이 활동: 미디어 및 인터넷을 이용한 놀이가 28.2%로 가장 높음. 유아보다 초등 저학년 아동이 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
- 놀잇감: 87.8%가 구매, 한 달 평균 1.78개의 장난감 구매하며, 평균 소요 비용은 약 54,000원임.
-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어머니의 요구: 안전한 놀이 공간의 부족, 놀이 시간 부족, 놀이 대상 부족이 지적됨. 공간의 확보, 사교육 감소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음.

### 놀이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요구

- 면담 아동: 만 3-5세 유아 25명, 초등 저학년 아동 24명 총 49명
- 가장 재미있는 경험: (유아)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 특정 장소에서 하는 놀이; (초저) 친구,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실외 공간에서 하는 놀이, 신체 활동 및 미디어 놀이 선호함.
- 놀아도 재미없는 경험: (유아) 놀이 대상이 놀아주지 않을 때, 놀이 대상이 방해할 때, 놀이 대상이 화내고 짜증낼 때; (초저) 아플 때, 놀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만 할 때, 놀이 대상과 싸울 때, 놀이 대상이 반칙할 때 놀아도 재미없다고 보고함.
- 놀이 대상: (유아, 초저) 주 놀이 대상은 가족, 희망하는 놀이 대상도 가족임. 초등 저학년 아동은 친구와의 놀이가 유아에 비해 증가함. 놀이 주도성은 유아가 더 강함.
- 놀이 공간: (유아, 초저) 실내(집)에서 놀이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실외에서 놀이하는 것을 선호함.
- 놀이 유형: (유아, 초저) 미디어, 인터넷 놀이와 신체 활동 놀이를 주로 함.
- 사교육 경험: (유아) 절반정도 이용; (초저) 대부분 사교육 경험이 있으며 대도시에서 비율 높음.
- 놀이 요구: (유아) 장난감, 만들기 재료에 대한 요구 높음, 놀이 대상, 장소, 매체 등 언급함. (초저) 장소, 대상, 장난감에 대한 요구 언급함.
- 놀고 싶은 바깥놀이터: (유아) 시설 중심적 놀이터, 함께 놀이할 사람이 있는 놀이터, 자연이 어우러진 놀이터를 희망함. (초저) 이야기를 담은 놀이터, 모험이 있는 놀이터, 쉴 수 있고, 오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희망함.



###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사례

- 아동참여 디자인, 커뮤니티 놀이터 중심 국내 사례로 수원시 '우리가 꿈꾸는 놀이터', 안산시 '공동체 숲',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를 다룸.
- 국외 사례로 Parks for the Planet Forum: The Child in the City: Health, Parks and Play와 이스라엘 홀론시 '어린이 도시', '이야기 정원' 사례를 살펴봄.
- 시사점: 놀이터가 지역사회 주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 문화 형성의 구심점 기능을 가져야 함. 아동 놀이 환경 조성은 가족,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 놀이 환경 조성에 지자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정책 제언

- 결론: 아동의 놀이에서 놀이 공간, 놀이 대상, 놀이 시간 부족의 복합적 영향이 증가함. 아동의 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국가 차원의 아동 놀 권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가족 친화적 놀이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아동의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방안: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전환, 시도교육청 놀이 시간 관련 정책 활성화, 유아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아동의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 지역사회 참여 놀이터 확대, 지속적인 놀이터 유지보수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마련, 지역 격차 감소를 위한 읍면지역 놀이터 확충, 지역 놀이 공간 홍보 지원에 힘써야 함.
- 아동의 놀이 대상 확보를 위한 방안: 일 가정 양립제도 확충, 지역사회 내 놀이터 도우미, 놀이터 지킴이 양성 및 파견, 지역사회 인력 활용이 필요함.
- 아동의 놀이 프로그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 내 놀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 놀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아동의 놀이감 확보를 위한 방안: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놀이감 패키지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내 놀이감 대여, 물려주기 서비스를 확대함.
- 바람직한 미디어 매체 활용 방안: 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 놀이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함.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위한 아동, 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함. 미디어 및 인터넷 놀이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함.

#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유해미, 최효미, 강신혜

##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이 각 양육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지원 대상 포괄범위 및 수준과 추가지원 내용 등을 제시함.

## 연구방법

- 정책 수요자(예비부모,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총 1,200명과 저출산 분야 정책 전문가 총 31명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효과, 개선요구 및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

- 출산 및 양육 시 지원에 대한 필요도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7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공히 6.06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임.
-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출산 하는 데 필요한 출산지원 정책 및 제도의 필요도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7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임.

###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 과제

- 자녀돌봄 지원의 효과는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이 평균 4.90점(7점 척도), 0~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 평균 5.48점, 초등돌봄교실 각각 평균 5.4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중앙정부의 출산 및 양육 차원에서 돌봄지원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평균 6.06점(7점 척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 방과후 돌봄 5.9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5.81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5.74점, 임신·출산관련 의료비 지원 5.61점 순임.
- 2016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는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32점(7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 제언

- 자녀돌봄 지원의 포괄범위는 돌봄서비스 지원의 경우는 초등학교학령기, 양육비 현금지원, 세제지원, 아동 건강 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모두 중고등학교학령기까지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함.
- 돌봄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위주에서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학령기 교육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순으로 명료화함.
- 돌봄지원의 적용기준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상담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 발달지원 언어발달 부모 상담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은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추가지원 내용으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아동수당, 산후조리원 지원, 영유아 무료독감 예방접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하원(교)서비스, 중고등학교학령기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모색할만함.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김아름, 유해미, 박은영, 장민선

## ●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이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아동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아동 관련 정책들을 분석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방법

- 아동권리, 아동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현행 법체계 분석 및 개선과제 검토, 해외입법례 수집 및 비교·분석 등의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함.

## ● 연구결과

### 아동권리 보장과 법적 기반의 차원

- 아동권리 보장의 범위와 영역별 세부 내용,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정비와 미비 사항 등을 검토
-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과 정부의 주요 대책 등을 점검함.
- 특별히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근로아동의 환경개선,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함.

### 우리나라 아동법제 분석 및 평가

- 현행 아동관련 법률들이 아동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지 점검하고, 세부 항목별로 법적 미비사항이 없는지 검토
- 다수의 법률에서 통일되지 못한 아동의 정의 및 연령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있으며, 기본법 성격의 통합법을 통해 아동의 정의 및 범위를 명료하게 개념화 할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의 증진과 체계적 노력을 위해 관할 부처 등의 행정전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아동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해외사례 검토

- 독일은 기본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몇 개의 특별법들로 구성된 법제를 두고 있어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함.
- 영국의 아동법제는 아동중심의 접근이 전제되어 있으며,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지향

### ● 정책 제언

-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현재 개별법상 법적 기반이 미약하여 아동권리보호가 취약한 영역에 대해 개정을 추진
- 2단계로 용어, 연령 등 중복·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재정이 분산되고 충돌 우려가 있는 관련 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 3단계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일된 기준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기본법 제정 마련
-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단계로서 현행 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명시 필요

# 한국 어린이 성장 발달 코호트 모형 구축 및 타당화 연구

이정림, 김지현, 이규림, 조혜주, 임종한, Gustavo Carlo

## ● 배경 및 목적

- 임신-성인기까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제반 유전 및 환경적 요인 파악
- 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대규모 성장발달 코호트 모형구축 기획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모형구축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 국외 관련 전문가 활용 및 연계
- 국외 종단연구 시행 기관 방문
- 척도 타당화 연구

## ● 연구결과

### 모집방법 프로토콜 개발

- 다단계 표본추출법 적용하여 산부인과병원을 1차 추출단위로 하고, 1단계 추출단위 내에서 신생아를 추출함.
- 설계기준치, 무응답조정, 사후중화조정 고려하여 표본가구 가중치 산출
- 임신부 모집 후, 임신 중 산모의 혈액 채취 방안 마련
- 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조사프로토콜 구성 및 개발

-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 및 환경 요인 중심으로 구성
- 조사프로토콜 내용은 설문조사와 실제 수행검사를 통한 측정 및 생체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구성되도록 기획하였음.
- 설문대상별(아동, 부모, 교사 등)로 조사영역(발달, 대상특성, 영향변인 등)을 구분하고, 가설상의 변인(인지, 신체, 사회성 등)과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세분화시켜서 측정방법(설문, 발달검사, 실제측정 등), 측정시기(출산 전, 6개월, 5세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조사영역별 연구 가설 설정

- 한국아동패널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조사 영역을 중심으로 소아정신과 및 환경의학 분야 의사, 영양 분야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협력진과 워크숍 등을 통하여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음.

### 아동 및 부모 특성 관련 척도 타당화 연구

- 친사회성, 도덕성, 타인조망 및 공감능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애착 척도는 내적일관성 점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구인타당도 등이 검증을 통해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밝혀졌음.

##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전국규모의 광범위한 자료 생산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연구 활성화 및 심화
-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자료 생산 및 제공
- 미래 인적 투자 방향 제시로 국가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 국가의 당면 과제들인 저출산, 사교육, 자살, 고용, 복지, 보건, 환경오염, 건강 등과 같은 주요 이슈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장애 치료 방법 개발, 장애 병인 및 보호 요인 등의 파악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격차 해소

#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 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김지현, 문무경, 최윤경

## 배경 및 목적

- 가정 양육의 중요성이 높은 영아시기에, 가정에서 영아에게 제공되는 양육환경을 진단하여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환경 지표를 개발함.

## 연구방법

-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영아 양육환경 척도 및 가정양육환경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함.
- 1차 도출된 영아 양육환경 지표안을 이용해, 아동학·가족학 전공자, 지표개발 선행연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표에 대한 적합도, 중요도를 점검하는 델파이조사를 2차례에 거쳐 진행하였음.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320가구(예비조사 20가구, 본조사 3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정의 물리적환경, 양육자와 영아의 상호작용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 영아 가정양육환경 지표개발 및 관찰지표 매뉴얼 개발

- 영아 가정양육환경을 크게 물리적 양육환경, 양육자 특성, 양육지원환경의 3개영역으로 나누었음.
- 물리적 양육환경은 안전한 실내환경, 그림책 및 놀이감 활용, 다양한 자극 제공, 적합한 양육용품 구비의 4개 지표요소, 15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매뉴얼에 따른 관찰조사로 측정됨.
- 양육자 특성은 양육자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 양육자 양육지식, 양육자 심리적 역량의 3개 지표요소, 34문항으로 이루어졌고, 양육자 상호작용은 매뉴얼에 따른 관찰조사로 측정됨.
- 양육지원환경은 양육분담, 양육인적지원, 직장문화 및 정책적 지원의 3개 지표 요소, 17문항으로 이루어짐.

### 영아 가정양육환경 지표 문항양호도,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해 문항변별도 및 문항 단일성을 검증하고, 조건에 미달되는 일부문항을 삭제하였음.
- 2차에 거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음. 적절한 수준의 문항 타당도와 중요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고, 개방형 의견도 참고하여, 지표 수정에 반영하였음.
-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를 검증, 공인타당도 및 내적일관성을 측정하였음.



### 1세 영아 가정 양육환경 현황

- 물리적 양육환경의 경우 자율성 촉진환경, 발달 적합 놀잇감 및 용품 구비 등의 요소에서는 85.6%, 81.0%로 높은 양호비율을 보인 반면, 안전 환경은 44.7%로 낮게 나타남.
- 양육자 특성 중 양육자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의 경우 탐색허용은 86.6%, 영아와 상호작용은 79.0%의 양호비율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본생활습관 형성, 실외놀이 활동 기회제공의 경우 양호비율이 70%이하로 나타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양육지원환경 중 배우자의 공동양육에서는 훈육 및 양육방법 논의, 가사 활동 분담 등의 양호비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나, 가사일에 대한 책임 및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 정책 제언

- 생애 초기 영아 가정양육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아 양육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됨.
- 영아 가정양육환경 지표를 단위가정에서의 자가진단용으로 또는 지자체 등의 가정방문을 통한 중재 및 개선 프로그램 등에서 보완·개선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안전환경, 영아의 미디어 노출 등 양호비율이 낮은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양육환경에 대한 인식 재고 및 지원이 필요함.
- 양육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재고가 요구됨.

##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연구

강은진, 도남희, 염해경

### ● 배경 및 목적

- 개인 창의성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조직에서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인적·사회적 환경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과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심층면담, 조사연구(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지역의 교육과정 우수유치원과 일반유치원 5세 유아 195명,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9세 아동 195명 대상 창의성, 창의성향, 창의적 교실분위기 조사 및 교사 40인 대상 창의성향, 창의적 학교환경 조사), 해외출장, 사례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의

### ● 연구결과

#### 기관 유형별 교사 특성

- 교사의 창의성향과 교사가 지각한 창의적 근무환경: 일반유치원에 비해 우수교육과정 유치원 교사의 창의성향과 교사가 지각한 창의적 근무환경 점수 높음. 반대로 초등학교는 연구학교 교사에 비해 비교학교 교사의 점수가 높음.
-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요구: 교사의 창의적 역량과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음.

#### 기관 유형별 아동 및 교실 특성

- 창의성: 유아는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남. 창의성 요인 중 독창성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원아의 점수가 일반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 점수는 성차는 있으나 기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창의성향: 일반유치원에 비해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원아의 창의성향이 높음. 연구학교 재학 아동의 창의성향도 일반 초등학교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창의적 교실 분위기: '엄격한 규칙과 지시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일반유치원이 높게 나타남. 연구학교 아동들이 일반학교에 비해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에서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 교실 분위기, 교사의 창의성향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

- 유아의 창의적 성향은 유아의 창의성, 유아가 지각한 창의적 교실분위기와 관련이 있었고,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음.
- 초등학생의 창의적 성향은 학생이 지각한 창의적 교실분위기, 교사의 창의적 성향과 교사가 지각한 창의적 근무환경과도 관련이 있었음.

### ● 정책 제언

- 창의적 학교환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업 혁신을 위한 연구학교 내실화 및 평가 방법 개선, 교육(지원)청 내 수업 개선 담당 인력 및 유아교육과 분리
-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축: 지식들을 재탐색하고 융합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 공간, 생각과 느낌을 신체로 표현하는 공연 공간, 실외 놀이터/운동장 및 자연친화 공간, 지식정보 및 소프트웨어의 탐색이 이루어지는 공간 필요
- 창의적 학교를 위한 인적·사회적 환경 조성: 아동 주도적 교실분위기 조성, 기관의 창의적 풍토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관장 리더십 교육, 예비교사들의 창의적 역량을 위한 교원양성과정 개선

#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의 내실화 방안

박창현, 양미선, 김태우

##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노동 및 직무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 정책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분석(개념, 현황, 법제도, 학술논문, EU 회원국 보조인력 정책 쟁점 분석)
- 설문조사(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및 관리자 934명, 보조인력 360명 대상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태 파악)
- 전문가 델파이 의견 조사(전문가 43인 대상 3회 조사)
- 심층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

## ● 연구결과

### EU 회원국 보조인력 정책의 이슈와 쟁점

- EU 회원국 보조인력 현황과 직무, 보조인력의 초기 자격조건과 요구되는 역량 프로파일, 보조인력의 전문성 개발 현황을 제시
- 핵심 이슈와 쟁점은 교사와 보조인력 간 위계구조 개선: 총체적 vs. 유·보 분리 접근, 자격인증 제도의 개선, 보조인력의 경력과 배경 인정 및 승급루트 마련, 모든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인력의 다양성 강화임.

### 전문가 의견분석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 고용안정: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보조인력 채용과정 투명성 보장
- 복리후생: 보조교사 근무경력 인정, 보조인력의 사회보험, 수당, 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차별없는 지원, 보조인력 휴가 연차기준에 대한 가이드마련
- 제도 및 관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보, 기관 규모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의 탄력화, 보조인력의 직무 명료화 및 역량 프로파일 마련, 정부 및 지자체 지침 내 보조인력이 담당해야할 업무 명시 및 매뉴얼 배포, 관계당국의 보조인력의 근로조건 및 현황 모니터링, 보조인력 자격 기준 상향 및 강화

- 전문성 교육: 보조인력을 위한 사전 기본교육, 보조인력의 교육훈련 참여기회의 확대, 담임교사 대상 보조인력의 권리교육 강화 필요
- 보조인력 내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정규직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대 아동비율 및 학급규모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완화, 교육과 보육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는 총체적 정책 접근, 정교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 방과후과정의 정체성 제고

#### 설문조사

- 594개 유치원과 340개 어린이집 원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조인력 필요성과 이유, 근로조건 및 환경(급여, 4대보험 현황, 복리후생제도), 직무 및 교육(인력선정기준, 인력충원시 시급 업무, 교육연수 필요성, 연수 경험 및 의향, 연수이수가 어려운 이유), 애로사항(고용시 발생하는 문제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의 여부 및 이유,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되어야 할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점 및 비동의 이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 바람직한 보조인력 배치구성), 보조인력을 위한 정책개선안(고용안정, 관리, 복리후생, 업무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관 유형별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음.
- 170명 유치원 보조인력(부담임, 강사, 기간제교사, 행정보조인력), 190명의 어린이집 보조인력(누리보조교사, 일반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부담임교사) 대상 노동 실태 결과를 다루었음. 보조인력 필요성과 이유, 근로조건 및 환경(주당 근무시간, 봉급, 휴게시간,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직무 및 교육(업무환경, 업무시간, 전반적인 업무만족도, 주업무, 업무 및 근무실태 인식, 총원이 시급한 업무, 담당업무 숙달시간, 교육연수 참여 의향, 교육연수 이수경험), 애로사항(업무상 불만족 이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보조인력을 위한 정책개선안(고용안정, 관리, 복리후생, 업무)를 다루었으며, 기관 유형별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음.

## ● 정책 제언

####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향

- ECEC 인력 시스템 혁신: 모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 시스템 마련
- 개인수준에서는 보조인력의 초기 자격기준의 상향(이상적으로 60%이상 학사),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인정하는 자격제도 마련, 학과제, 대학 교육과정 제공, 다양한 교육자료와 연수제공 등을 고려



- 기관 수준에서는 보조인력을 위한 팀미팅 또는 합동연수, 교육 코디네이터의 멘토링,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구조 혁신, 같은 목표와 교육과정을 교사와 보조인력이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기, 모든 교직원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보조인력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다양한 배경의 보조인력에 알맞은 특별한 전문성 개발 기회 제공 등을 고려
- 기관 간 수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연수 지원, 혁신적인 실제 공유, 기관별 유사 직책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새기관 적응을 위한 훈련체계 마련 등의 정책들을 고려
- 거버넌스 및 정책 수준에서는 보조인력 훈련과 멘토링을 위한 자원 제공, 교직원 교육과정 체계 마련, 교사들의 자기 시간 제공 등의 정책을 고려

####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조인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고용안정: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보, 보조인력 채용의 투명성 보장, 지속가능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정책 지원 필요
- 복리후생: 보조인력 근무경력 인정, 보조인력의 사회보험, 수당, 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차별없는 지원 필요
- 제도 및 관리: 보조인력의 채용 확대, 기관 규모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의 탄력화, 보조인력 역량 프로파일 마련, 정부·지자체 수준의 보조인력 업무 매뉴얼 배포, 관계당국의 보조인력 근로 현황 모니터링 및 대규모 실태조사, 보조인력 자격기준 상향 및 승급 기회 제공, 보조인력의 직렬체제 마련과 인력풀의 체계적 관리, 젠더와 계층의 다양성 필요
- 전문성 교육: 보조인력 사전 기본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참여기회의 확대, 담임교사 및 관리자 대상 보조인력의 인권교육 강화 필요
- 보조인력 내실화를 위한 선행조건: 모든 인력의 실질적인 노동조건과 처우개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 유형별 제도의 격차 완화, 교육과 보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총체적 접근, 기관의 특수성 및 방과후과정의 정체성 제고

# 누리과정 성과 제고를 위한 교사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 박진아, 이슬미, 조현수

##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공통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의 목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과 전문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사 정책의 설계를 목적으로 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어린이집·유치원 원장/교사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 교사-원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System-Staff-Curriculum 관련 요인 탐색

## ● 연구결과

###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사 실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자원 유야에 대한 반 편성을 살펴볼 때, 혼합연령반의 구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혼합연령반에서의 누리과정의 수행과 이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교육·보육과정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행정업무 시간이 길게 나타남. 이로써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부모 응대, 교사들의 휴식 및 다음 과정에 대한 준비 시간의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90% 이상의 대다수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며 교사로서 사명감과 긍정적인 자긍심을 느낀다고 응답함. 그러나 동시에 교사 직무수행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 역시 70%로 높아, 교사로서의 갖는 행복감 속에서도 부정적 정서 역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90% 이상의 교사가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유아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육·보육 활동과 과정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교사가 높은 교사 효능감을 보고한 가운데, 효능감이 낮다고 보고한 교사들(약 39%)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연수와 멘토링 지원이 필요함.

## II. 2017년도 주요연구 일반연구

- 전문성과 관련된 요소 중 '유아 행동관리와 유아 다루기'에 대한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실행 계획과 수업 준비'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음.

###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리더십 분석

- 원장의 1일 근로시간은 평균 약 9.5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시간이 1일 10.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보고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 행복감도 긍정응답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러나 유아 교육·보육이 직업으로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는지 사회적 인식과 지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에 대해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영유아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줌.
- 원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에 관한 자체평가는 3.4점(94.8% 긍정응답)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조직진단 결과에서 '기관의 비전과 가치 공유'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교사의 역량평가'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 근로여건의 개선과 원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원장 대상의 컨설팅은 기관 운영과 경영, 행정업무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정책 제언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지원체계의 수립

- 기관 환경의 측면에서 교사 근로시간의 전반적인 양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구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보육의 기본지원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수요에 맞게 다양화 함. 4-8-12시간 등의 시간 구성에 따른 전문화된 활동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함.
- 연령별 반/학급의 구성과 행정직원 등 교직원의 균형 배치, 급여체계 개선, 중간관리자 및 지원인력의 보강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혼합반, 다문화, 장애와 같은 영유아의 개별화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의 연수와 지침의 제공, 멘토링과 같은 교사 지원체계가 필요함.
-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적 요구에 반응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주동적으로 활동을 구성, 응용하는 심화 연수와 교육,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함.



### 누리과정 성과 및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커리큘럼 관련 정책이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 진행되도록 함.
- 양적 인프라의 구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교사 간 네트워크와 이들의 직무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기구 및 체계가 필요함. 교사 지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달체계를 통해 교사 역량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함.
- 중간관리자, 행정직원, 직원, 유아격 보조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학급/반 크기와 같은 기본환경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와 원장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교사 및 원장 대상의 체계적인 연수와 멘토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교사를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확보를 담은 시설기준의 마련과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 공립-사립/민간 시설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교사와 원장의 자격과 인력의 배치, 근무시간 등의 차이 완화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함.
- 교사 인건비 지원체계에 관한 재고가 필요함. 부모-기관 위주의 지원체계 외에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고 인건비(예: 수당)를 지급하는 급여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영)유아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전문성 개발을 통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마련하도록 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

김은영, 강은진, 염혜경

### ● 배경 및 목적

- 초등학교는 현재 핵심역량을 고려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제정 이래 꾸준히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왔음에도 아직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연구는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누리과정 개정 T/F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전문가,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포함한 총 27명의 T/F위원을 구성하여 초안에 대한 논의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함.
- 전문가 서면 검토: 각 영역별로 추천받은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전문가, 초등/영역 전문가, 현장전문가 각 1인씩 4인을 구성하여 20인에게 작성된 개정(초안)에 대한 서면검토를 받음.
- T/F 위원 및 전문가 워크숍: 누리과정 개정(초안)의 최종 검토를 위하여 T/F 위원과 유아교육, 보육, 초등/영역, 교육과정 전문가를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함.
- 현장 교사 서면 검토: 누리과정 개정(안)에 대해 유치원 교사 4인(특수교사 1인 포함), 어린이집 교사 4인(통합교사 1인 포함), 초등학교 교사 2인, 총 10인의 현장 교사가 서면검토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검토함.
- 국문학자 감수: 최종 개정(안)의 국문법상 정확한 개념 사용과 표현의 오류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문학자의 감수를 받아 수정함.

### ● 연구결과

#### 누리과정의 성격

-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및 편성·운영의 기준

-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학교에서 기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포함함.



- 구성의 중점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의 6가지를 명시함.
- 목적 및 목표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의 목적은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이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임을 명시함.
- 편제와 시간 배당은 누리과정 5개 영역을 명시함. 5개 영역 내용을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연령에 따라 중점 영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함.
- 누리과정 운영은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하되 각 기관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명시함.
-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안을 추가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각론

- 신체운동·건강 영역 '기본운동하기'의 영역 명칭 대부분을 전문용어로 수정함. 안전에 대한 내용 강조함.
- 의사소통 영역 기존의 내용 범주를 그대로 하되, 세부 내용 및 연령별 수준을 조절함.
- 사회관계 영역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관심 가지기' 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연령별 내용 조절함.
- 예술경험 영역은 기본의 내용범주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의 표현을 바꾸며 연령별 내용을 조절함.
- 자연탐구 영역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개념을 연령별로 명확히 하여 연령별로 세분화함.

### ● 정책 제언

- 누리과정 주기적 및 수시 개정 체계 구축: 누리과정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시기를 맞추어 주기적 개정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시 개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시도 및 단위 기관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별로 발간하거나 보다 다양한 참고용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이나 기관 특징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누리과정 시범 적용 및 교원 연수 지원: 2018년 개정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현장의 시범 적용을 거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교원 연수를 충분히 진행한 후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임.

## 누리과정 평가와 향후과제

이윤진A, 이규림, 박은영

### ●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동일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어려움(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의「누리과정 성과분석」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평가를 크게 1)누리과정 수업평가와 2)누리과정 정책 인식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누리과정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를 모색함.

###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방법으로 수업평가를 위한 현장관찰조사(유치원·어린이집 11개 기관 참여: 지역규모, 시설유형 고려 선정) 및 인식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누리과정 이용 학부모 1,000사례, 원장 500사례, 교사 500사례, 전문가 50사례, 담당공무원 100사례 등 5개 집단)를 실시함.

### ● 연구결과

#### 누리과정 도입 전후(2011~201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 변화

-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 수는 증가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수는 감소함.
- 그러나 여전히 유아의 약 70%가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며 대다수 교사들도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함.
- 만 3~5세 유아의 90% 정도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님. 취학 전은 의무교육·보육단계가 아니므로 이 수치는 대부분의 유아는 누리과정(비)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이점과 공통점

- 공통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누리과정 지원단가(월 22만원), 무상교육·보육 내용과 범위, 결제카드, 통합 평가지표, 통합정보공시 등
- 상이점: 법령, 부처, 인가조건, 설치·운영기준, 행·재정 전달체계, 교사양성·자격 관리 및 배치, 교사 근무환경 및 처우, 기관 운영시간, 교사 대 아동비율 등
-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이점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물리적 통합까지 추진하지 못함.

### 누리과정 수업 평가

- 평가도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평가지표인 “통합평가지표”의 일부를 활용해서 수업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규모별, 설립유형별 확연한 차이는 없었음.
- “통합평가지표”에서 서면평가는 대체로 우수하였고, I 영역(교육/보육과정)이 II 영역(교육/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 비해 평가가 낮게 나옴. 특히,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체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평가가 낮게 나온 교사도 공립교사임. 이는 고용안정성과 고경력에 질높은 수업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임.
-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 ‘확산적 발문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누리과정 정책 인식평가: 5개 집단 비교분석

- 비용지원으로서의 정책 인식평가: 현행 “보편적 동일한 지원방식”에 대해 전문가, 공무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원장과 교사는 적절하다고 인식함. 만약, 지원방식을 달리한다면 가구소득별 차등지원방식을 5개 집단 모두 지지함.
- 공통과정으로서의 정책 인식평가: 원장과 교사는 누리과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문가와 공무원은 낮게 평가함. 또, 전문가는 현행과 같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공통과정에 대한 동의정도가 낮게 나옴. 이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집)는 줄이고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정책(1일 1개 1시간)에 대한 인식평가: 학부모집단을 제외한(해당 문항 미 실시) 4개 집단은 지금과 같이 3개 연령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로(발달고려) 차등실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누리과정 도입 후 현장 변화에 대한 인식평가: 학부모집단을 제외한(해당 문항 미 실시) 4개 집단은 누리과정 도입 후, 수업의 질, 수업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반면, 교사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함.
-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인식평가: 누리과정 도입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해소 정도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집단은 가장 높게 평가했고, 공무원 집단은 가장 낮게 평가함. 교사양성 일원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집단을 제외한 원장, 교사, 공무원 3개 집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유보통합을 위한 부처 일원화를 5개 집단 모두 필요하다고 평가함.



### ●● 누리과정 발전방안

- 누리과정 정책 목표인 ‘생애출발선 평등보장’ 및 ‘국가책무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현행 ‘보편적 동일한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월 30만원까지 증액
-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에서 ‘확산적 발문법’ 교육 강화
- 누리과정 개정 시, “생활주제 교사용지도서”개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 현행, 유아 연령 무관하게 적용하는 “1일 1개 1시간”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 정책을 유아 연령을 고려해서 차등 실시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통일
- 교사양성 및 배치의 표준화
- 부처통합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최효미, 김나영, 김태우

## ● 배경 및 목적

- 교육·보육비용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은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취지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과 같은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세제를 통한 지원 혜택과 유아학비·보육료 상상을 막기 위한 조치, 대체적 서비스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이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5개년도 연속과제의 마지막 차수인 5차년도 연구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수행함.
-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전국(제주 제외) 1,119가구(1,505명)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됨.
- 전문가 조사는 40명에 대한 분석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은 7회(총 17명) 실시함.

## ● 연구결과

###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5만5천원임.
- 전체 응답자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43.3%이며, 어린이집 이용비용 총액은 월평균 6만9천원이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35.2%이며, 이용비용은 월평균 19만8천원이었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나, 이용비용은 평균 73만5천원으로,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비용 수준을 보임.

## II. 2017년도 주요연구 일반연구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총액 평균 11만4천원으로,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의 이용 빈도가 가장 많으며,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평균 5.6시간, 주당 평균 4.8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비용은 53만7천원임.
-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8만9천원으로 0~10만원 미만 구간에 28.7%가 밀집되어 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1.8%였으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8.5%임.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 18만2천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0세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매해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임.
- 이용 서비스 종류별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이후 감소세가 발견되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5%미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이용비용은 가장 비싼 교육·보육서비스였으며,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통상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으며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는 5%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12.1%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해마다 월평균 50만원대로 지난 5년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음.

###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7점 만점에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줌.
-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6.4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들과 같은 의견이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는 6.0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에 비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해서는 6.4점을 주어 높은 지지도를 보임.
- 정책 지원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현행과 같이 전 계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만 지원(24.1%), 특정 연령만 지원(14.1%) 순임.



-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에서는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 기관과 사설 기관(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 등)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으며, 기관 유형에 따라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임.

## ● 정책 제언

- 어린이집의 경우 8시간을 전후한 시간을 국가 지원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국가 지원 시간을 설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방과 후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
-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보육비 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실질적으로 기관의 세입이 교육·보육비 단가에 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은 기존과 같은 장시간의 보육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부모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높음.
- 추가 보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에 추가하는 등으로 영유아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표준보육료와 교육비 산출 연구(V)

박진아, 김근진, 윤지연

###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위기 극복과 더불어 영유아기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3-5세 누리과정 및 0-2세 무상보육 시행, 양육수당의 지급 등 새로운 육아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정부의 재정 투자가 증가함.
- 유아기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규모를 추정해야하며, 이를 위한 기준점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가 산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2017년 기준의 '표준보육료'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 목적으로 함. 또한,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여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모형을 개발하고 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 사례조사
- 보육비용·교육비 산출 및 시뮬레이션

### 연구결과

#### 보육비용 산출

- 본 과제에서는 보육비용의 개념을 일정 수준의 보육 활동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정의하고 2013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의 산출 모형을 최대한 준용함. 보육비용 구성 항목은 선행연구와 2016년 기준의 재무회계규칙 관·항·목을 반영하여 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 설정함.
- 어린이집 교직원 급여는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원장 15호봉, 담임교사 5호봉,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호봉을 1안으로 책정하고 2안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국공립 평균 결과에 따라 설정함.
- 급간식비와 교재교구비는 2015년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관리운영비와 시설비는 어린이집 세출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 보육비용은 인건비 산출 기준에 따라 2개 안을 제시하였음. 1안은 인건비 기준을 전체 어린이집 평균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9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 987,000원, 1세 691,500원, 2세 551,900원, 3세 407,900원, 4-5세 364,800원으로 산출됨.
- 2안은 인건비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한 결과로, 97인 규모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월 보육비용은 0세 1,040,600원, 1세 724,100원, 2세 575,500원, 3세 419,400원, 4-5세 373,700원으로 산출됨.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운영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질과 내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동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각각 항목을 산출하고 합산함.
- 총 표준유아교육비 규모는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 경비, 표준공동운영 경비를 모두 합산하여 3조 9,088억 원으로 산출됨.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에 소요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1,071억 원이며, 사립유치원에 소요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2조 8,017억 원으로 산출됨.
-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간 5,830천 원, 월 486천 원으로 산정됨.
- 공립유치원의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간 5,903천 원, 월 492천 원이며, 사립유치원의 표준원아 1인당 표준유아교육비는 연간 5,801천 원, 월 483천 원으로 산출됨.

####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을 위해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모형을 제안하고 2017년 기준의 비용을 산출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의 4~5시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항목을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로 구성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누리과정운영비는 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각 운영 기관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비용을 산출하고자 함.
- 제안된 모형의 산출기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배치, 교사자격, 학급 구성 등에 따라 유아 1인당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산출결과를 제시함.



## ● 정책 제언

### 보육비용 산출 및 활용

- 표준보육비용 산출의 중요한 기능을 고려할 때 아동 1인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시간과 인력배치 등 보육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표준보육'의 개념 정립이 필요함.
- 현재의 보육비용 산정 방식은 아동 1인당의 비용 산정에 초점이 맞춰있어 보육료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방식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활용 목적에 따른 산정 방식 개편이 요구됨.
- 보육비용 산정 모형 및 산출 기준 재설정

###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및 활용

- 현재의 산출방식은 국가 재정에서 무상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유아 1인에게 투입되는 지원단가와 단위 유치원에서 책정되는 원비 인상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출 방식 개편이 요구됨.
- 유치원 설립 유형에 따른 '표준유치원 모형' 수정

### 누리과정운영비 산출 및 활용

- 누리과정운영비의 산출 모형과 방식은 누리과정의 질적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을 요소별 단계에 반영함에 따라 누리과정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본 과제에서 제안한 모형에 추가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누리과정비용이 산출 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 보육비용과 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보완한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고려한 교육비와 보육비용 산출에 유연하게 활용 가능함.

###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자료 신뢰성 확보

- 어린이집의 회계 예·결산 자료는 보육통합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어 공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유치원 대상의 회계 컨설팅과 회계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II):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배윤진, 조숙인, 장문영

## ● 배경 및 목적

- 한부모가족은 일상의 큰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부 또는 모가 생계를 위한 일과 육아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가짐.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제적 지원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입각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부모와 자녀 중심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및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 분석
- 한부모가족 부모 400명 대상 설문조사
-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한부모가족 부모 17사례, 한부모가족 관련 실무자 24명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 정책제언 논의를 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 ● 연구결과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재분석

- 자녀 돌봄: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이용 비율이 높고, 모자가구 혹은 저소득 집단에서 직접 돌봄이 많음. 어른없이 자녀 혼자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미취학 아동 14.2%, 초등자녀는 54.3%임. 한부모는 양육비, 교육비용 부담, 자녀양육 스트레스, 돌봄 시간 부족의 어려움을 경험함.
- 한부모가족으로서의 경험: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 정도가 높음. 한부모로서 부모역할을 혼자 감당하는 어려움, 집단일 부담 증가, 미래에 대한 부담 증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함.
-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환경: 다수의 한부모들이 자신의 부모나 친인척에게 도움을 요청함.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많음.
- 전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 전배우자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14.9%, 한부모는 3.4%임. 47.9%는 전배우자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음. 부자가구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 비율이 높음.



- 지원 요구: 자녀 혼자 있을 때 이용 가능한 야간보육(미취학 자녀)이나 초등돌봄, 방과후 교실(초등자녀)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 높음.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현금지원, 주거지원 순으로 응답함.

#### 한부모가족 특성별 자녀양육 및 지원 요구

- 자녀양육: 약 77.5%는 기본교육·보육과정 외 추가 이용기관이 있으며, 돌봄의 목적 혹은 자녀 학습 특기교육 차원에서 이용함.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은 평일 4.1시간, 주말 10.5시간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고, 역할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함. 과반수의 한부모는 전배우자와 본인 혹은 자녀가 지난 1년간 교류가 없었다고 보고함.
- 개인 및 생활 특성: 가구 소득이 높으면 신체활동과 건강 식단 섭취 횟수 높고, 극장, 콘서트, 공연장 이용 여가 생활 비율이 가장 높음. 자녀의 적응기간은 평균 20개월이 소요되었다고 인식되며, 여성 한부모가 낮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을 보여줌.
-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의 부모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음. 연령별 자녀양육방법, 아동 행동문제에 따른 대처, 자녀 적응 지원의 내용을 필요로 함. 아동양육비, 드림스타트, 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 입소우선, 학용품비 지원의 수혜정도가 높음. 한부모 행사 참여 정도는 35% 수준임.

### ● 정책 제언

-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접근성 강화, 자녀 연령, 가구 구성(모자가구, 부자가구, 기타구성원 유무), 취업여부,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접근: 개인 역량 증진과 부모-자녀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함. 이혼 후에도 자녀와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유지를 지원해야 함.
- 경제적 지원의 개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연령기준 확대와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지원 기준의 개선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돌봄 공백의 감소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요함. 즉,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도 자녀 돌봄과 직업 생활이 모두 가능하도록 돕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한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 자조모임 활성화가 필요함. 사회적 인 편견 해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박원순, 최은영, 박상봉, 최윤경

## ● 배경 및 목적

- 균형을 잃은 식사 및 식습관의 문제와 함께 신체활동의 저하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비만 문제가 심각.
- 부모가 밝힌 유아 자녀의 신체활동 수준은 하루 평균 25.5분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의 신체활동 수준이 낮음.
- 통합교과와 초등 교사의 인식 부족 문제로 초등 저학년의 신체활동 수준이 낮음.
- 초등 저학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미 개발된 유아용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자문회의, 초등 저학년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면담조사, 국외 출장

## ● 연구결과

### KICCE 건강증진 초등연계 프로그램 개발

- 신체 활동의 교육과정 상의 유초 연계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KICCE 건강증진 초등연계 프로그램 개발
- 「Mission-X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발
- 기존의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우주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16차시로 KICCE 건강증진 초등연계 프로그램 개발

### KICCE 건강증진 초등연계 프로그램의 제한점

- 교사를 위한 동영상 매뉴얼이 없어 문서만으로는 활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움.
-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홍보 및 보급이 미진함.

### KICCE 유아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다양화

-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관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
- 단기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유아가 주도하는 소집단 활동으로 재구성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동영상 매뉴얼 제작



### ●● 정책 제언

-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적절한 신체활동 반영
- 초등학교에 신체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 교사 연수, 활동계획안 및 다양한 교수자료 제공과 같은 신체활동을 위한 교사 지원
-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및 교구 지원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II)

권미경, 박원순, 이규림, 박인숙

## 배경 및 목적

- 평가인증을 통한 어린이집의 질관리 노력이 이루어지나, 평가 이후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와 자체점검, 모니터링 또한 필요함.
- 이에 평가보다는 조력, 컨설팅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상시 질 관리체계로의 컨설팅 안을 준비하는 선제적 접근임.

## 연구방법

-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 현황 및 컨설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에 기초한 ECEC 질 관리 체계에 대한 국외 사례를 호주와 영국을 중심으로 고찰함.
- 어린이집 평가 연계 CARE 컨설팅 모형 및 운영 체계와 컨설팅 매뉴얼을 수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 연계 CARE 컨설팅 2차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함.

## 연구결과

### ECEC 평가 연계 질 관리 국외 사례

- 호주는 보육기관의 질 관리체계는 관리 전담 기관인 '유아교육 및 보육 질 관리국(ACECQ)'과 '규제기관'을 운영하며, 평가 기준으로 국가법, 국가규제, 국가 질 관리 기준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영국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있고, 교육표준청(Ofsted)에서 기관 평가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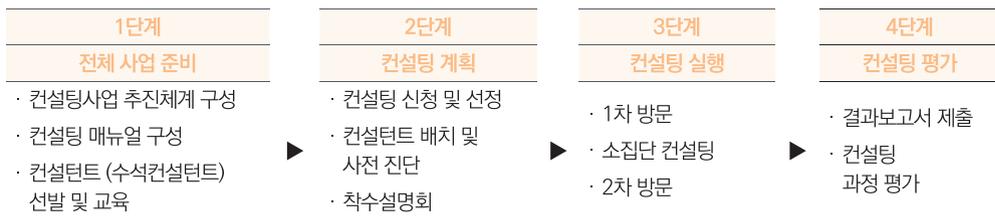
### 2017 CARE 컨설팅 특징

- 서울, 충북,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협력진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수석컨설턴트 선발 및 멘토단 구성하고 시범참여기관 원장 대상 착수설명회를 개최함.
- 컨설팅은 <사전진단 → 1차 방문 → 소집단 상담 → 2차 방문>의 순으로 진행하였음.
-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 평가를 하고 어린이집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2017 CARE 컨설팅 모형

- 본 모형은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를 위한 CARE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준비과정부터 계획, 컨설팅 실행, 컨설팅 평가에 이르는 총 4단계로 구성됨.
- 컨설팅 과정은 어린이집의 신청 시점부터 결과보고 및 종료까지 약 4개월 내외 기간이 소요됨.



### ● 정책 제언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의 컨설팅 운영체계 설계가 필수적임.
- 컨설팅 이후 개선 정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며, 컨설팅 소요비용은 참여 어린이집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며 컨설팅 실행을 위한 교사 지원을 강화함.
- 컨설턴트의 선발 및 교육, 역량 있는 컨설턴트 풀(pool)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질 관리 도구로 CARE 컨설팅 결과의 누적 및 자료화가 필요함.

#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 I )

김동훈, 이재희, 이혜민

##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2017~2021년 5년간의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문화와 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인식과 체감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육아지원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과 건전한 육아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문헌분석을 통해 육아정책의 방향성 파악과 현안 주제 선정을 위해 관련 기본계획, 언론기사 및 검색 키워드를 분석함.
- 정기여론조사(대국민 3,000명)와 수시여론조사(영유아 부모 500명)를 실시함.  
※ 정기: 부모됨, 양육관, 결혼관, 육아행복감,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만족도, 저출산 대응정책 등  
수시: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 가정 내 양육, 일·가정 양립 등
- 부모 모니터링단(i-POL) 구성, KICCE POLL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마련 및 여론조사 결과 공유

## ● 연구결과

### KICCE 정기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응답함(5점 척도에서 3.53점). 그러나 50~60대 이상보다는 10~20대인 경우는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음(60대: 3.45점, 50대: 3.37점 vs. 20대: 3.03점, 10대: 3.06점).
-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상당수가 공감함(5점 척도에서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 실제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은 자녀양육의 경우 어머니 6.86 : 아버지 3.14, 가사의 경우 어머니 6.81 : 아버지 3.19로 나타남. 그러나 이상적인 자녀양육 분담 비율은 어머니 5.83 : 아버지 4.17, 가사 분담 비율은 어머니 5.84 : 아버지 4.16으로 실제와는 괴리가 있음.
- 여전히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하지만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양상임.

## II. 2017년도 주요연구 일반연구

-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1~2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은 235.20만원이었음.
- 정부의 육아지원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우선순위에서는 차별적 지원(48.8%)이 전체층 무상지원(42.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수혜가능성이 높은 40대 미만에서는 추가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더 많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음.
-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확충, 서비스 질 향상,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1+2+3순위) 비율이 높음.
-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도와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임신·출산 지원 정책, 자녀돌봄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음. 반면, 저출산 대응에 대한 실제 정책효과 측면에서는 보통수준(3점대 초반)으로 중요도에 비해 거는 기대치는 낮았음.
- 아동수당의 지급 필요성에는 45.5%가 동의하였으나, 여전히 40.7%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42.2%는 영유아 자녀의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일정금액의 현금을 매월 지급하고, 부모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정부의 영유아 육아지원정책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임. 20~30대 핵심 수혜계층과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낮았음.

### KICCE 수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 자녀의 첫 기관 이용시기로 영유아 부모들은 대부분 만 2~3세, 개월수로는 약 30개월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시간은 평균 8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본이용시간 이외의 추가 이용에 대한 부모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73.2%가 찬성함.
- 어린이집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가 현재 전반적으로 많다는 응답이 높았고, 현행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은 작다는 의견이 많음.
- 양육수당 지원 수준이 현재지원수준보다 높아야한다는 의견이 6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20대, 미취업, 비맞벌이 가구에서 높았음.



## ● 정책 제언

### 육아문화 개선 과제

-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부모교육 참여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인정이 필요함.

### 육아정책 개선 과제

-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5세 전계층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및 보육료·유아학비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의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정책,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시간연장,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시간제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구특성에 따른 어린이집 적정 등하원시간과 적정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본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고, 가구 특성에 맞게 부모 자부담 등 비용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영유아수를 줄이고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가정내 양육 지원 내실화를 위한 양육지원센터의 동 단위 확대 및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 양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III):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

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 위생 관리 실태 분석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

## ●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3개 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실태 및 관리에 대한 연구의 일환임.
- 3차 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기관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연구 방법으로 문헌 분석, 심층 면담, 설문 조사, 국외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어린이 안전 포럼을 실시함.

## ● 연구결과

### 영유아 및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건강관리 방식을 질문한 결과, '부모가 제출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확인'한다는 응답률(92.1%)이 가장 높았음.
-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필요한 추가항목으로 알레르기(10.2%)가 가장 높았고, 건강검진 개선사항으로는 '정신건강을 포함한 검진 실시'(34.0%)가 가장 많이 요구됨.
- 영유아 예방접종상태 확인 방법은 '입학(입소) 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69.4%, '시스템으로 확인' 51.5% 순으로 나타남. 한편 '확인하지 않음'도 12%였는데, 기관유형별로 어린이집은 0.2%, 유치원은 35.2%로 나타남.
- 교직원의 전염성 질환 감염 의심 시 기관의 조치 방법으로는 '학부모들에게 공지 후, 병가처리'(87.9%)가 가장 높게 나타남. '조치를 취하지 않음'도 0.9%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려움'(36.4%)이 가장 많이 언급됨.

### 질병관리 및 응급처치 현황

- 부모의 투약의뢰서 제출 비율은 98.2%로 나타났고, 투약하는 사람은 담임교사(97.2%)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교사는 4.8%로 나타남. 투약 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약의뢰서 없이 보내진 약'(58.8%)이 가장 많이 언급됨.



- 특수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질환보유율이 알레르기(48.3%), 비염(31.5%), 간질(3.1%), 소아당뇨(0.8%) 순으로 높았고, 질환에 대한 대처 방법은 '부모 요청에 따른 개별 대응'이 90%대로 가장 높았으며, '가이드라인 활용'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음.
- 전염성 질환 발생시 질병에 따른 격리/귀가 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를 격리하거나 돌보는 공간이 있는 비율은 48.7%로 나타남.
- 최근(2017년 3~8월) 교직원의 질병예방 교육 이수율은 83.5%로 나타났고, 최근(2017년 3~8월)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률은 타박상(43.9%)이 가장 높았음.

#### 실내환경 위생 및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기관의 실내공간별 청소 횟수를 살펴본 결과, 교재교구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매일'이 가장 비율이 높았음. 또한 공간별 청소 주담당자를 알아본 결과, 조리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교사' 응답률이 가장 높았음.
- 실내환기 방법으로 자연환기가 9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청정기 62.4%, 중앙환기시설 7.7% 순이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연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을 병행하고 있었음.
- 기관의 전반적인 실내공기질 정도(4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22점으로 나타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우선 개선사항을 살펴본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설비 설치 및 주기적 관리'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정책 제언

- 영유아 및 교직원 건강관리 방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 예방접종 시스템 관리 및 홍보 강화, 어린이 집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 교직원 건강관리 기준 일원화 및 내실화를 제안함.
- 질병관리 및 응급처치 개선 방안으로 투약의뢰 대처 방안, 영유아 특수질환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전염성 질환 관리 방안, 응급조치교육 지원 및 자격소지자 의무 배치를 제안함.
- 실내환경 위생 및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으로 인력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함.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도남희, 배윤진, 이예진, 이윤진B, 김문정, 임준범, 김희수

## ● 배경 및 목적

- 아동을 둘러싼 물리적·인적·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횡·종단적 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문헌 고찰과 발달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관련 변인과 문항을 검토함.
- 면접조사(TAPI), 설문조사 및 수행검사를 실시하여 총 1,484가구가 참여한 조사를 마침.

## ● 연구결과

### 9차년도 조사 대상자 특성

- 남아가 51.3%, 여아가 48.7%임.
- 출생순위는 첫째·외동아 46.5%, 둘째아 41.9%, 셋째아 10.4%의 순임.
- 대다수 아동은 초등 2학년에 재학 중으로, 2016년 조사 시점의 연령은 8년 3개월임.

### 아동특성

- 아동은 주중에 21시 58분에 잠들어 7시 26분에 깨어나 평균 9.47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주말에는 약간 더 길게 자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평균 신장은 129.32cm, 체중은 28.82kg, 허리둘레는 평균 60.93cm으로 나타났으며, BMI는 17.14kg/m<sup>2</sup>으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임.
- 학습적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다요인 지능검사(어휘 적용력, 언어 유추력, 도식화 능력, 수리력, 공간 지각력, 추리력) 결과 도식화 능력과 수리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음.
-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33점, 전반적 행복감은 3.45점으로 나타남. 아동의 미래 희망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30.6%로 가장 많았음.



### 부모 및 가구 특성

-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 38.82세, 아버지 41.24세로, 대졸자가 각각 44.6%, 56.0%로 가장 많았음. 부모의 평균 결혼기간은 11년 8개월이었음.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94.4%로 대다수였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4.45명으로 집계됨.
- 가구소득은 평균 492.66만원, 어머니 근로소득은 약 200만원 정도였으며,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 하여 스스로가 인지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9점 척도)는 중간 수준인 5.03임.

### 학교,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패널 아동의 92.5%는 전학한 적이 없으며, 75.5%가 지난 학기 동안 결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67.5%는 주거지 변동이 없었으며, 28.1%는 1회 이사한 것으로 나타남.

## ● 정책 제언

- 아동이 홀로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만 남겨지는 시간에 대한 보호체계가 필요함.
-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도가 필요함.
- 지역단위의 공동 문화 공간 설치 등을 통한 아동의 문화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김나영, 김아름

### ● 배경 및 목적

- 아동수당은 유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보기도 함.
- 유자녀 가족이 자녀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비용 때문에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아동수당을 도입했을 때의 재원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정해 봄으로써 국가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배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선진국의 아동수당 관련법과 제도의 연혁을 정리함과 동시에 현황을 정리함.
-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추계함.

### ● 연구결과

#### 아동수당법 제정안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은 아동수당의 대상연령을 6세 이상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함.

#### 아동수당 지원 규모 추계

-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모형을 기본형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은 2018~2027년 10년 기간을 추계했을 때,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091,478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이후 아동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2,926,896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증가형(1)에서는 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2018년 첫 해에는 3,224,412 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아동 인구 추계규모가 점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추계된 예산은 2022년에 3,052,753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0-5세) 추계규모는 15,622,857백만 원임.
- 증가형(2)에서는 2018년에는 3,091,478백만 원이 지원예산으로 추계되었고, 2022년 지원예산으로 추계된 규모는 3,512,275백만 원으로 추가적인 지원 증가로 다른 모형과는 달리 다소 상승하여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6,153,645백만 원이며,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6,676,136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출산순위형(1)에서는 2018년 첫 해에는 1,165,784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2022년에 1,124,694백만 원 규모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 규모는 5,746,010백만 원이고, 추계기간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본다면 총 11,349,254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출산순위형(2)에서는 2018년 첫 해에는 3,674,370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추계된 총 아동수당지원 추계규모는 17,851,775백만 원이며, 2027년까지 본다면 총 35,309,289백만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 ● 정책 제언

-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 출산장려 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와는 달리 출산장려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의무교육 연령과 아동수당 수령 연령의 연계를 고려하여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각종 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해당 지원의 정리 및 폐지 고려
- 물가의 상승, 자녀양육에 대한 지출 패턴 및 규모 변화 등 향후 자녀양육 가구가 처할 여러 가지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책정될 수 있는 정책적 모형을 해당 부처에서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 지원의 증액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수혜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지원으로써의 수당을 제공하고, 그에 더하여 개별 수혜자들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추가적인 정책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합리화 방안 연구

이윤진A, 이민희

### ●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4년에 전면금지했던 초과보육을 2016년부터 탄력보육이란 용어로 변경해서 허용하면서 이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음.
- 어린이집 반편성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탄력보육(반별 정원탄력편성)”과 보편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투담임제(반별최대정원제)”의 실태 및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면담조사(원장 6명, 교사 5명, 학부모 7명), 설문조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현장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탄력보육 및 투담임제 운영(추정) 어린이집 316개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함.

### ● 연구결과

#### 어린이집 반편성 원칙과 예외사항

- 원칙은 같은 해에 태어난 영유아끼리 편성하되, 만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 만4세 이상 1:20임.
- 탄력보육 허용기준은 원칙에서 만1세 최대 1명, 만2세 최대 2명, 만3세 이상 최대 3명까지 추가할 수 있음. 그러나 시도별 허용 탄력보육기준이 다름.

#### 탄력보육 운영 어린이집 현황

- 2017년 7월 기준으로 10,107개가 운영함.
- 만1세~만2세반 중심으로 운영하며 어린이집 1개소 1개반 탄력보육 아동수는 평균 1.52명임.
- 운영이유는 “운영의 어려움”(27.9%)이 가장 많았고, 탄력보육 담당 교사의 처우개선은 “수당지급”(59.4%)으로 가장 많음. 탄력보육반의 보조교사는 ‘없다’가 절반 이상임.
- 탄력보육의 장점은 “기관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단점으로는 “교사의 업무 가중”을 가장 많이 꼽음.



### 투담임제 운영 어린이집 현황

- 2017년 7월 기준으로 19,735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됨.
- 탄력보육과 마찬가지로 만1세, 만2세, 만0세반 순으로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함.
-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1.58개 투담임제반을 운영하며, 1개반 평균 아동수는 11.65명임.
- 투담임제 실시 이유는 “보육실 부족”(30.5%)이 가장 많았고, 보조교사는 ‘없다’가 절반 이상임.
- 투담임제 장점은 “교사에게 휴식제공”을, 단점은 “교사간 업무분장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음.

### ●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반편성 개선방안

- 가정어린이집은 “현행 교사대아동비율을 준수하되 보조교사 배정”을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대아동비율 하향화”,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서 자율적 반편성 운영”을 개선방안 1순위로 희망함.
- 탄력보육 허용기준의 탄력화 필요. 즉, 기관규모, 설립주체에 따라 운영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허용 기준보다는 상황에 따른 허용기준 제시가 필요함.
- 탄력보육 수입금에 대해 교사 인건비 추가지급보다는 보조교사 채용을 우선 권장함.
-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담임제를 「보육사업안내」의 반편성 유형으로 명시
- 투담임제란 용어를 “공동담임제” 또는 “1반2담임제” 등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 용어로 변경 필요
- 반편성 원칙의 예외적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지침 개발

도남희, 최정화, 박상신

### ● 배경 및 목적

- 유치원 급식 관련 실태를 확인하여 2012년에 제작된 ‘유치원 급식 운영관리 지침서’를 현장 요구를 중심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영양이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관련 문헌 연구, 관련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선행연구 분석 및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침서를 개정·보완함.

### ● 연구결과

#### 지침서 개발 과정

- 급식 관련 기존 자료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서의 기능성, 가독성, 최소 기준 마련의 방향성을 설정함.
- 유치원 내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식단 구성 및 급식종사자의 명료한 업무 지침 마련 강조함.
- 간결성과 가독성에 초점을 두어 유치원 급식의 이해,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영역별로 내용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함.

#### 최종지침서의 특징

- 기능적인 면과 실무내용을 강화함.
- 유치원 연령에 맞는 영양관리에 중점을 둠.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염 및 저당 식단 및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들의 대체식단 구성에 도움.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중요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다룸.



### 주요 내용 구성

- 유치원 급·간식의 필요성 및 특징, 식생활 지도로 구성됨.
- 영양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 서식자료를 포함, 유치원 급식과 평가에 필요한 법규별로 정리하여 급식 운영관리 전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함.

### ●● 정책 제언

- 기존 지침서의 제한점 및 새로운 현장 수요가 반영된 기능적 지침서 발간
-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내용이 강화된 지침서 배포
- 유치원 자원 유아의 연령 및 개별적 발달 특수성에 적합한 급·간식 제공 가능
- 체계적인 유치원 급·간식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기반 마련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정림, 이윤진B, 박현옥

## ●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특히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특수교사와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규정이 만4세 까지로 확대된 시점에서, 특수교사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한 파악이 필수적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기관장, 교사, 학부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면접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특수학교/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의 4가지 유형별 우수사례 기관 방문

## ● 연구결과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는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 현장, 관련전문가들은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원론적 입장: 모든 장애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임.
  - 현실적 입장: 어린이집 관할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 제안함.
  - 절충적 입장: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임.
- 장애 유아 현황에 관한 정확한 통계치 부재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 수치에는 0-2세 장애 영아와 입학유예아동도 포함되어 있음.
  - 연령별로 어린이집 배치 유아의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음.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가 배치되고 있음.



## ● 정책 제언

###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대책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이 제공되어야 함.
-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전국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필요

- 장애 영아, 장애 유아,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가 필요함.

### 장애 유아의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을 위한 단기 및 장기 방안 마련 필요

##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김근진, 박창현

### ●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교육현장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특히 행정인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인력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연구방법

- 문헌조사: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
- 면담조사: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을 방문하여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원을 면담하고, 국공립 유치원 각각의 유형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탐색함.
- 전문가 자문: 시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 각각의 행정지원 수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

### ● 연구결과

####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전담원감 배치: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중 일부에만 배치된 전담원감 배치를 확대해야 함.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전담원감이 올 수 없는 1-2학급 병설유치원에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전담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에도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함.
-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분리: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업무분장 상의 과중한 부담을 해결해야 함.
-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초등학교 행정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을 지급해야 함.
- 공문 공람: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병설유치원에 공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 개선 필요

####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보건인력 지원: 단설유치원에는 간호사 및 보건교사와 같은 보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인력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함.



- 초등학교 수준 행정지원 인력 배치: 단설유치원에도 비슷한 학급 수를 가진 초등학교 수준의 행정지원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장학습 지원인력: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많으므로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현장학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인력이 필요함.

#### 단병설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교사가 수업지원을 해야 하므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필요
- 급식실 지원: 병설유치원은 자체적인 급식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할 수 없고, 단설유치원도 자체적인 급식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급식실 지원 필요
- 안전관리 인력 지원: 유치원 원아들은 초등학교보다 어리기 때문에 교문 뿐만 아니라 현관까지도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함.
- 교육관련법 유치원 포함: 학교급식법 등 초·중·등교육 관련법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교육관련법에 유치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보다 행정지원에 용이함.

### ● 정책 제언

-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전담원감 배치 확대,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확대,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분리,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지급, 공문 공람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
-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건인력 지원, 초등학교 수준 행정지원 인력 배치, 현장학습 지원인력 등의 방안을 제시
-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실 지원, 안전관리 인력 지원, 교육관련법에 유치원 포함 등의 방안을 제시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설유치원보다 행정지원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유해미, 이민희

## ● 배경 및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감염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긴급보육 지원을 특히 대체교사의 가정내 파견 방식을 위주로 모색함.

## ● 연구방법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보육 실태와 지원요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연구결과

### 긴급보육 실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자녀를 맡길 때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연간 해당 빈도가 5회 이상인 비율이 53.6%로 조사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간 경우 자녀를 돌봐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조부모 등 혈연 42.7%,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40.5%로 조사됨.

### 긴급보육 시 지원요구

-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요구로는 부모 직접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로는 의료시설내 부설 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29.0%였으며, 대체교사 가정 파견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14.3%에 그침.
- 자녀가 아픈 경우 가정내 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으로는 '보육교사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이며, 희망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6,000~8,000원이 51.4%,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작 시각이 오전 8시 37.4%, 오전 9시 34.6%, 종료 시각이 오후 6시 이후 69.1%로 조사됨.



## ● 제언

### 기본 방향

- 대체교사 긴급보육 지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돌봄인력(대체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

###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 6개월 이후 아동에 적용하며, 적용 증상으로는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 치료 필요는 없으나 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일상적인 질환(감기, 소화불량 등),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 등을 포함함.
- 가정내 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아픈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를 대체교사에게 전달하여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에도 활용함.
-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 선이 고려될 수 있으며,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 까지 운영함.
- 사업 실시 주체는 자치구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며, 시범 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365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대체교사 신청 공지,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함.

#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성격에 부응하는 누리과정 운영 개선방안

박창현, 이민희, 이경화

## ● 배경 및 목적

- 누리과정 정책이 도입되고 현장에서는 유아교육과정 정책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 특히 누리예산 문제, 유보통합 문제 등으로 교육과정 정책은 주목받지 못했고, 운영과 평가의 측면에서 획일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여러 비판적 연구들이 제시되었음.
  - 누리과정 자체요인(고시문과 지도서 등)과 운영형태 및 평가의 방식이 과형식화되고, 통제와 규제 위주의 운영 탓에 전국의 유아교육과정 운영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현장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의 성격에 부응하는 유아가 행복한 교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유아교육과정 정책 혁신안에 따른 유아교육 정책의 유기적 개편을 기대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정책의 문제점을 유아교육과정의 성격과 운영, 평가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현장에서 유아들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실천 과제를 제안하는 것임.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육아정책연구 보고서인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 전문가 의견조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럼 형식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 ● 연구결과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문제점을 교육과정의 성격,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진단

- ‘성격’에서는 고시문과 교사용지도서의 모호한 성격, 교수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이 부족한 방대한 내용의 교사용지도서, 5개 내용영역, 활동유형, 흥미영역, 생활주제의 복잡한 관계, ‘추구하는 인간상’ 누락, ‘시수’와 놀이의 충돌, ‘교육계획안’과 유아 흥미 및 요구의 충돌, ‘흥미영역’으로 인한 유아의 놀이공간의 교과화, ‘지식·기능·태도’와 교사 및 유아 놀이 역량 충돌, ‘능동적 상호작용’의 IRE 구조로의 의미 왜곡 등의 문제점이 진단됨.
- ‘운영’에서는 통합의 의미와 대상, 방식의 애매성과 근거부족, 놀이의 의미와 가치 왜곡, 놀이를 교수·학습활동으로 간주, 계획안 중심 교육과정 운영, 1일 4-5시간 운영의 모호성, 수업시수 개념 작동으로 인한 자유놀이의 가치 절하 등의 문제점이 진단됨.
- ‘평가’에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평가, 유아교육과정을 획일화 시키는 평가지표, 객관화, 기계화된 외부자 중심 평가방식 등의 문제점이 진단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개선방안을 교육과정의 성격, 운영, 평가의 측면에서 제안

- '성격'에서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성격제시의 명료화, 유아의 자유놀이중심 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내용 제시,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명료화, 놀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용어 삭제 및 재구성, 5개 영역과 주제를 내용적으로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 체계 제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
- '운영'에서는 유아의 경험이 통합되는 자유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지향, 통합 교육과정의 성격을 유지 하되,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모호한 진술 삭제, 교수·학습활동으로 전략된 놀이의 의미 복구, 자율적 자유놀이 운영을 명시, 유아교육과정 모형과 접근의 다양화 가능성 명시, 기관의 철학 반영, 다양한 모형과 접근이 포함된 자유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원칙으로 명시, 교사-계획안 중심에서 유아-자유놀이 지원 중심으로 전환, 교수·학습 활동으로 자유놀이 운영의 원칙만을 제안, 교사 중심의 상호작용 발문 지양, 교사용지도서의 양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 제공, 누리과정 세부내용 삭제, 생활주제 축소, 1일 4-5시간 누리과정 운영 시간 기술 삭제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
- '평가'에서는 유아와 유치원을 존중하는 평가로 패러다임의 전환, 단위 유치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평가로 전환, 단위 유치원이 주체가 되는 간주관적 평가로 전환, '교육과정', '교육환경' 영역 지표의 변경 및 축소, 지표체계의 다양화 및 지표 선택권 보장, 유치원 자체 평가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외부자 평가 권한의 최소화,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되는 '평가'의 정체성 정립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

## ● 정책 제언

### 정책방향

-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 교육과정으로의 누리과정 개편
- 기관단위 유아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립
- 누리과정의 간명화,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실천의 다양화 강화
- 유아의 자유놀이+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제 마련

### 누리과정 혁신을 위한 정책 로드맵

-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는 자율적 교육과정을 추구
- 정부, 기관, 부모, 지역사회와 자치와 분권을 지향
- 유아의 자유놀이가 살아나고 유치원 단위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정립
- 유아의 자유놀이를 지원하는 실천중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유아의 자유놀이와 유치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구축

#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강은진, 조성연, 박상신

## ● 배경 및 목적

-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 국정과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이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교육과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발의 기초가 될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문헌연구(현직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교사양성 교육과정 검토), 전문가 조사(학계전문가 50인), 자문회의

## ● 연구결과

### 개편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 개편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 일부 도움이 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76.5%)를 차지
- 개편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일부 도움이 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59.2%)
- 교사양성과정과 재교육 과정에서 격차 이유: 자격 취득 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32.7%)
- 보수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의 차별성: 별도 운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61.2%)를 차지

### 전문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

- 참여의사 및 운영방식: 의무교육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40.4%)
- 전문교육과정의 개발방향
  - 교육대상 선정 기준: 자격취득경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교육내용 선정 시 고려점: 경력교사의 직무에 맞는 핵심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교육 운영 기관 및 방식: 강사수급 및 관리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교육 지원 및 혜택: 대체교사 지원과 같은 실질적 지원 혜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 ● 정책 제언

###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및 운영

- 핵심역량별 교과군 제시: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크게 교사 소양, 실무 역량 교과군, 행정 및 리더십의 세 개로 분화, 그에 따른 교과군 제시
- 전문교육과정 인증기관 선정 기준: 운영진, 교·강사진, 운영방식, 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게만 자격을 부여

### 대상별 전문교육과정 방향

- 장기안[신규자격(가칭, 원감) 승급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교사의 전문성 발달 주기에 따른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이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전문교육과정 도입
- 중기안[특정 교사 대상 전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의 대상을, 특히 온라인 형태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와 보육직무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17개 교과목만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로 선정
- 단기안[일반 보육교사 소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보수교육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보수교육과정 인정 과정으로서, 교사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과정으로 운영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권미경, 이재희, 최인화

### ● 배경 및 목적

- 다문화 배경을 지닌 가족 중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초보적인 수준임.
-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인 다문화 배경 한부모 가족의 지원요구 파악을 토대로 건강한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관련 선행연구 및 법적 제도적 현황자료 검토
- ‘2016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다문화 배경을 지니고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심층면담(15인),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 연구결과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 다문화결혼은 감소세로 전체 결혼에서 중 다문화결혼 비중은 2008년 11.2%, 2016년 7.7%임.
- 다문화 한부모 가구는 유배우자 가구에 비해 생활 여건, 자녀 양육, 한국생활 적응에 취약함.
- 다른 학부모들과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고, 학부모 모임 참여 자체가 어렵고,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음.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지원 정책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등 관련법과 지원정책 추진 중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사와 다문화생활지도사 그리고 결혼이민자 멘토링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나 다문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서비스전달체계 간에 연계가 필요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양육지원 요구

- 다문화 한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지원을 위해서는 한 부분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 취득은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
- 다문화 한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이혼과정의 불평등, 국적 미취득 등의 결과로 파생되는 문제로 기초생활비 지원 같이 생활비용의 지급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다문화 한부모로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이라는 부담해결을 위해 자조모임을 구성한다든지 자녀 또래친구 어머니와의 유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정책 제언

-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하며,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어머니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둬.
-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 공간 제공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자녀양육 기간 동안 다문화 한부모의 한국 국적 인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강화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학습기회 확대, 원스톱 정보제공, 다문화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자조모임 활성화를 제언함.
-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법적 제도적 정비, 정책 속지와 담당 업무분담, 정확한 안내,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지원 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정책 접근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 사각지대 해소,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파악 등을 제언함.

## 아태지역국가들의 육아정책 모니터링 연구(Ⅰ): 푸트라자야 선언문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문무경, Mami Umayahara, 박상신

### ● 배경 및 목적

- 제2차 아태지역 장관 육아정책포럼(2016)에서는 Education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Target 4.2 달성을 위하여 '푸트라자야 선언문(Putrajaya Declaration)'을 채택함.
- 본 선언문에서는 아태지역의 우선적 실행과제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최소 1년의 무상교육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의 통합적 정책, 영유아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취약계층 유아를 위한 포괄적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9가지를 선정함.
- 본 사업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실행과제별 이행 장애요인과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 단계적인 이행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고자 함.

### ● 연구방법

- 관련 통계현황 및 유관 문헌 분석
- 설문조사: 푸트라자야 선언문의 9가지 실행과제별 이행 현황에 대한 15개국의 설문응답 분석
-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와 집중워크숍 개최

### ● 연구결과

#### 아태지역국가들의 푸트라자야 선언문 이행 수준

- 10개국이 최소 일 년 이상의 초등교육 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 중. 다수의 국가(46개국 중 24개국)가 의무교육 시작연령을 6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초등교육의 시작 시점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 조사 대상의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를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ECCE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공교육 지출 대비 취학 전 교육 투자 비율이 현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아태지역 국가 중 6개국(룩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디브, 몽골 및 베트남)이 전체 교육관련 지출 비용의 10%이상을 유아교육에 투자함.



-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구축, 처우개선 및 현직 교사 보수교육까지 유기적이고 유연한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의 배치,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 전문성 제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함.
- 상당수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유아의 총체적 학습 및 발달 진행 강화 방안으로 놀이를 통한 학습에 주목하고 있음.

#### 국가수준 로드맵과 SDG4.2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의 기본 틀 개발

- 교육 2030 Thematic Working Group은 SDG 4-교육 2030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SDGs 5, 13 및 16과 연계하여 지역적 협력기반 강화에 중추적 역할 수행

### ● 결론 및 제언

- 본 15개국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ECCE 정책과 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질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파악됨. 그러나 하위지역 및 국가별로 수준 및 속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국가적 수준의 문서화된 ECCE 정책이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의 선행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전략적 계획에 기반을 둔 구체적 행동 계획 부재 시 정책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임.
- 양질의 ECCE 프로그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유사환경 내 다른 국가의 혁신적 성공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 ● 배경 및 목적

-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오늘까지도 언론을 통해 관련 사건들이 끊임 없이 보도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 개선과 발생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권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단계화를 통해 하나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범죄예방 및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유관기관의 단계별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연구방법

-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분석, 해외사례 분석,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전문가 간담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함.

## ● 연구결과

###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민간기관이 혼합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
- 또한, 단계별로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개입하고, 이 과정의 전반에는 중앙과 지방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업무의 경계가 애매한 측면이 있음.
- 법체계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서로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함.

### 해외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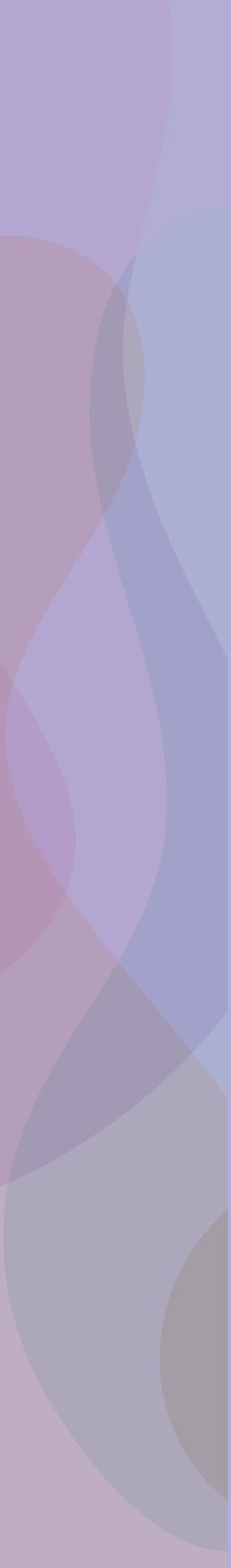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민간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처 간 협력과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독일은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서 청소년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여 최선의 국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상담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 정책 제언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 정비 필요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각출된 기금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고,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발굴, 사후 관리 기능 강화 모색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  
ANNUAL  
REPORT**

# III

## 2017년 주요활동



육아정책 관련 연구성과를 홍보 및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주요 간행물



## ● 육아정책 심포지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동향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2017년도 육아정책 심포지엄은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등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7. 3. 21(화) 연구소 세미나실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	발표:김아름 부연구위원 토론:이완정 교수(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김정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근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2017. 6. 1(목) 연구소 세미나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발표:강은진 연구위원, 박진아 부연구위원 토론:조경희 교수(충청대 아동보육과) 도남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강재희 교수(오산대 유아교육과) 박진재 이사(푸르니보육지원재단)
제3차	2017. 7. 18(화) 연구소 세미나실	신규 연구직원 주요 연구 및 연구 분야 발표	발표: 김근진 부연구위원, 이윤진 부연구위원
제4차	2017. 7. 25(화) 연구소 세미나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발표:최은영 연구위원, 양미선 부연구위원 토론:고영미 교수(순천향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백선정 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영명 원장(서강어린이집)
제5차	2017. 9. 5(화) 연구소 세미나실	신정부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방향성 진단	발표:임재택 교수(부산대 유아교육과) 토론:최윤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지성애 교수(중앙대 유아교육과)
제6차	2017. 12. 6(수) 연구소 세미나실	누리과정 시행 6년, 진단과 과제	발표:이윤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김희연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제6차 육아정책심포지엄



제5차 육아정책심포지엄

## ●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 운영: 육아선진화 포럼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는 산·학·연 교류를 위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 아동·가족복지 관련 학회, 유아 교육·보육 관련 단체, 공공기관, 아동 관련 단체 등 총37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2017년에는 「선진 육아지원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유아정책연구소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회를 1회 개최하였다. 또한 선진육아지원네트워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전문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기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협력하는 지원책을 논의하는 육아선진화 포럼이 1회 개최되었다. 육아선진화 포럼에서는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선진 육아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2017. 7. 14(금) 알로프트 호텔	육아정책연구소 2017년도 과제 소개 및 육아정책 관련 현안 논의	이희선 부회장(한국보육지원학회) 이미정 회장(한국보육학회) 제경숙 회장(한국생애학회) 유구종 회장(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정효정 회장(한국영유아보육학회) 엄미선 회장(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원장(서울 유아교육진흥원) 김영근 사업이사(재외동포재단) 장화정 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고의수 소장(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김은기 대표(푸르니보육지원재단)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2017. 11. 5(수) 엘타워 골드홀	아동권리 보장의 현 주소와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발표: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아름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조숙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토론: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유주현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희선 교수(가천대 유아교육학과)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 ● 국제세미나/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 총 5회의 국제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독일의 학계 전문가, OECD 관계자를 모시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 유아교사의 전문성, 유아-교사 상호작용 측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홍콩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육부 공무원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유아 교육 및 보육 현안과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이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7. 10. 3(월) 연구소 세미나실	KICCE-홍콩교육부·현장전문가 세미나 -ECEC Policy Issues, Strategies, and Lessons	발표:이정림 연구위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김은영 연구위원, 박원순 부연구위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참석자:홍콩교육부 Winnie LAI, Louisa HA 외 43명 참석
제2차	2017. 11. 20(월) 연구소 대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장관의 연구소 방문 기념 간담회	참석자:SHIN Agrepina 장관 TEN Elena 유아교육 과장 (이상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제3차	2017. 11. 30(목) 연구소 대회의실	KICCE-OECD 국제세미나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to Primary Education	발표: Yuri Belfali(Head of Early Childhood and Schools Division, OECD) 토론: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근규 교수(Delaware State University)
제4차	2017. 12. 5(화) 외교센터 12층 더모스트	KICCE 국제세미나 -Harmonizing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Korea: Challenges and Tasks	발표:정미라 교수(가천대 유아교육학과) Michel Vandebroek 교수(Ghent University) 토론:박은혜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 보육학과) 최윤경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김유미 팀장(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석광우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제5차	2017. 12. 6(수) 연구소 대회의실	KICCE 심포지엄 -Utilizing the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in Early Childhood Policy	발표:Gary Bingham 교수(Georgia State University) 권경아 교수(The University of Oklahoma) 토론:서영숙 명예교수 윤은주 교수(이상 숙명여대)



제1차 국제세미나



제3차 국제세미나



제4차 국제세미나

## ● 협동연구 공동 정책세미나

육아정책연구소는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방안'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과대학)과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협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학제간의 토론을 위하여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2015년 '제1차 어린이 안전 포럼'('12. 18), 2016년 '제2차 어린이 안전포럼'('12. 15)에 이어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
제3차 어린이 안전 포럼	2017. 12. 7(목) 연구소 세미나실	발표1: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성민기 교수(세종대 건축공학과)
		발표2: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련 법적 기준 (김아름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권승미 팀장(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실내환경팀) 조운주 교수(한국교통대 유아교육학과)
		발표3: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김호현 교수, 평택대 ICT융합학부)	최유진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김정원 교수(한국성서대 영유아보육학과)



제3차 어린이 안전포럼



### ●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제8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10월 20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1부에서는 호주의 Stephen R. Zubrick 교수(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의 호주 종단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Circumstances that chang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inform the policies of nations' 주제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NLSY79 책임연구원인 미국의 Elizabeth C. Cooksey 교수(The Ohio State University)의 미국 종단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한 'Children of the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ome Lessons Learned'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초등학교 전이, 초등학교 적응, 문제 행동, 부모 양육, 사회·정서 발달, 언어 발달 6개 주제별 학술논문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분	일시/장소	기조강연
제8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2017.10.20(금) 양재 aT센터	기조강연 1:Circumstances that chang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inform the policies of nations(Stephen R. Zubrick 교수,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기조강연 2:Children of the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ome Lessons Learned(Elizabeth C. Cooksey 교수, The Ohio State University)



제8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 출산·육아 지원 포럼

육아정책연구소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출산·육아 지원 포럼'을 개최하였다.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부모교육의 가치와 방향',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육아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7. 3. 10(금) 연구소 대회의실	생애주기별·가족특성별 부모교육의 가치와 방향	발표:김희진 교수(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제경숙 교수(경남대 유아교육과) 최연실 교수(상명대 가족복지학과) 손승영 교수(동덕여대 여성학전공)
제2차	2017. 4. 7(금) 연구소 세미나실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	발표1: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최효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발표2:아버지 양육참여, '내재동기'가 답이다 (김혜준 대표,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발표3: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 (유해미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토론:김영미 교수(동서대 사회복지학과)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강준 서기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

주요 행사

● 제5대 소장 취임식 및 열린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9일(화), 제5대 백선희 소장 취임식과 제1차 육아정책연구소 열린토론회(KICCE Active Listening)를 개최하였다. 개회하였다.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육아정책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맡고 있는 기관의 대표를 맡게 돼 영광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한 뒤, “연구범위를 보육과 유아교육 중심에서 확장시켜 저출산 위기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정부정책의 개발과 평가에 기여하겠다”며 “연구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열린토론회는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를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열린 귀를 가지고 관련 학계, 정책수요자인 부모, 정책실무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며 연구소에 향한 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준한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임소장의 의지를 담아 기획되었으며 총 5회를 계획하고 있다. 제1차는 학계(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사회복지학, 인문학)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분	일시/장소	주제	주요 참석자
제1차	2017. 12. 19(화) 외교센터 12층 더모스트	육아정책연구소에 바란다 - 학계 -	도현심 교수(이화여대 아동학과) 이삼식 교수(한양대 정책학과) 이희선 교수(가천대 유아교육학과) 정미라 교수(가천대 유아교육학과) 허 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제5대 소장 취임식



제1차 열린토론회

## ●● 유관 연구기관과의 교육포럼 공동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이 주관하는 교육포럼을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은 저출산 시대의 교육개혁 방안으로서 교육복지 실현 전략을 탐색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정책 비전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소통의 장이었다. 제11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은 2017년 협동과제로 수행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연구(I): 기초교육 실천 전략'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외에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 SDG4-교육2030 포럼'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춰 SDG-4교육2030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광범위한 교육2030 세부목표 중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SDG4-교육2030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제	주최 및 주관기관	참석자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2017. 7. 14(금)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키이홀	출발점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주관:한국교육개발원	세션1 발표: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최윤경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주최:한국교육개발원, 육아정책연구소, 교육정책네트워크	토론:김정례 과장(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제11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후원:교육부	세션2 발표: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조부경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토론:황옥경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김낙홍 교수(중앙대학교)
2017 SDG4-교육2030 포럼				세션3 발표:유초단계의 돌봄서비스 강화 및 질 제고 방안 (정선아 교수, 숙명여대)
				토론:최은영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유재복 교장(전주효림초등학교)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제11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2017 SDG4-교육2030 포럼

주요 행사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제	주최 및 주관기관	참석자
제113차 KEDI 미래 교육정책 포럼	2017. 11. 24(목) 엘타워 루비홀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교육 개발협력 실천 전략	주관:한국교육개발원 주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충남대학교	세션1 발표:영유아 보육과 교육(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교육제도 및 정책 개선(이기석,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및 평가(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강정자(교육부), 박은혜(이화여대) 장은정(한국국제협력단)
				세션2 발표:교육시설 및 학습 환경(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사 훈련(박환보, 충남대학교) 교육 형평성(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교 밖 아동 청소년(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서현숙(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곽재성(경희대) 김윤주(굿네이버스)
2017 SDG4- 교육 2030 포럼	2017. 11. 14(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한국 교육과 SDG4-교육 2030	주최: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션1 발표:아프리카 사업 사례(조현아, 호이) 아시아 사례(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권역별 기초교육 개발협력 사업의 특징 및 전망 (김기석, 국경없는 교육기회) 개도국 유형별 기초교육 협력 전략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토론:최동주(숙명여대), 신재은(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세션1 기조강연:이희수 교수(중앙대) 세션2 발표:조지민 본부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무경 실장(육아정책연구소) 조순욱 박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토론:김민호 교수(제주대), 채재은 교수(가천대) 세션3 발표:박환보 교수(충남대) 김철희 센터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종원 부장(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토론:김선주 팀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해선 소장(고등직업교육연구소) 세션4 발표:신윤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양숙 실장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박성철 팀장(한국교육개발원) 토론:송인자 부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철홍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세션5 토론:김천홍 과장(교육부), 김이경 교수(중앙대) 박성호 소장(한국교육개발원)

## ● 업무 협약(MOU) 체결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23일(토),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와 상호발전과 활발한 국제 연구 및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1)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 시스템 개발 협력, 2) 유아교육 분야 국가 표준 및 요구 사항 공동 개발, 3) 유아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4) 양국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 세미나 및 학회 개최, 5) 우즈베키스탄 시범유치원 설립 관련 협력, 6)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필요한 유관 정보 제공, 7) 육아정책연구소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연구 수행과 관련 상호 협력을 함께 추진하며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정책적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 ● Issue Paper

단기적으로 부상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	분야	주제	필자
1	미래인적자원육성 연구	영유아의 하루일과에 비추어 본 아동권리의 현주소 및 개선 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2		창의성과 양육환경 관련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남희 부연구위원
3		우리나라 영유아학대 현황 및 예방방안	김은영 연구위원
4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적정기준 마련 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김은설 연구위원
5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강은진 연구위원
6		하루일과를 중심으로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교사의 직업행복감	강은진 연구위원
7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원내 모니터링 실태 및 지원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8		유치원 방과후 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호수	분야	주제	필자
9	유아교육, 보육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공립유치원 확충 정책평가와 개선방안	양미선 부연구위원
10		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11		BSC 모델로 본 누리과정 정책 평가	이윤진 연구위원
12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의 쟁점 및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13		다문화유치원 운영실태 분석과 지원 방안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14	육아정책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누리교 정책 수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박창현 부연구위원
15		취업모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지출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최효미 부연구위원
16		표준 누리과정 운영비 산출 모형 개발 및 향후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17		「KICCE유아기건강증진프로그램」효과분석을 통한 신체건강증진 방안	박진아 부연구위원
18	저출산 시대 육아지원 및 부모지원 연구	영유아 부모 양육역량 강화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19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지원 요구 분석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20		아버지 양육역량 실태와 증진 방안	이윤진 연구위원
21		입양가족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배윤진 부연구위원
22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통한 학령초기 자녀 육아지원 방안	배윤진 부연구위원 김은설 연구위원



## ●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는 2007년부터 발간하고 있으며 취학전 영유아 대상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과 과제를 다루는 전문가 대상의 학술지이다. 본 학술지는 2013년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6년부터 연 3회 발간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1권 1호	2017.6.30.	보육교사의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열의의 매개효과	이재무 (단국대 평생교육원 초빙교수) 박용성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아버지의 우울, 자아존중감,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변수로	김진성 (연세대 신학과 상담코칭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부모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가족유연성을 매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한 종단 매개효과 분석	박새롬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노보람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박혜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아의 공격성 발달궤적이 부모, 교사,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홍예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1권 1호	2017.6.30.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정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 및 요구	임효미 (엔씨소프트어린이집 원장) 이승연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효과	정해욱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순환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지영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이현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분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를 중심으로	박창현 (육아정책연구 부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 부연구위원)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김아름 (육아정책연구 부연구위원) 배운진 (육아정책연구 부연구위원) 최윤경 (육아정책연구 연구원)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김미라 (가톨릭대 아동학전공 석사) 신유림 (가톨릭대 아동학전공 교수)
		11권 2호	2017.9.30
원장과 원감의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 경험의 의미 분석	송미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수료)		
기혼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갈등과 동료 갈등의 매개효과	이지영 (Talach State Univ. 교육경영 박사과정) 김성원 (충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조교수) 김진원 (장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홍예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영아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안수빈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순형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강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11권 2호	2017. 9. 30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유아 식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장숙현 (명지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사) 김지현 (명지대 아동학과 부교수)
		일본 신(新)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이규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김진미 (호서대학교 강사) 홍세영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상태변화와 평가인증점수	유재언 (IOWA State Univ. 인간발달가족학과 박사)
		미취학 아동의 보육 및 교육시설 입지환경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황세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김효진 (서울대 공과대학 도시설계 협동과정 박사수료) 최정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
11권 3호	2017. 12. 31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신체활동 실시상의 어려움에 대한 원장(원감) 및 교사의 인식 연구	김길숙 (삼육대 유아교육과 조교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환경과 효과 분석: 핀란드,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장민영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외래강사)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진화 (배재대 유아교육과 부교수)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간 종단적 관련성	서미정 (제주대 아동·생활복지전공 조교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방과후 돌봄공백이 학교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혜정 (서정중학교 교사)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박선주 (푸르니수지어린이집 교사) 강민주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EP)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ICEP)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문 학술지이며, 「IJCEP 홈페이지(<http://www.ijccep.com>)」에서 오픈엑세스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립 Rutgers 대학의 국립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한다.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11(1)	2017.1.18	Key factors and challenges of research-informed policy making in ECEC: examples from longitudinal studies	Janina Eberhart(International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rman Youth Institute) Sophie Hahn(International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rman Youth Institute) Carolyn Seybel(International Cente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German Youth Institute)
11(2)	2017.1.18	Longitudinal studies in ECEC:Challenges of translating research into policy action	Bernhard Kalicki(German Youth Institute) Namhee Woo(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 Steven Barnett(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11(3)	2017.1.23	Who us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rvices? Comparing socioeconomic selection across five western policy contexts	Amélie Petitclerc(UCD Geary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Dublin) Sylvana Côté(Departmen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Montreal) Orla Doyle(UCD Geary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Dublin) Margaret Burchinal(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Catherine Herba(CHU Ste-Justine Research Center) Henrik Daae Zachrisson(The Norwegian Center for Child Behavioral Development, University of Oslo) Michel Boivin(Institute of Genetic, Neurobiological, and Social Foundations of Child Development, Tomsk State University) Richard E. Tremblay(School of Public Health and Population Sciences, University College Dublin) Henning Tiemeier(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ophia Children's Hospital) Vincent Jaddoe(Department of Epidemiology, Erasmus MC-University Medical Center Rotterdam) Hein Raat(Department of Public Health, Erasmus MC-University Medical Center Rotter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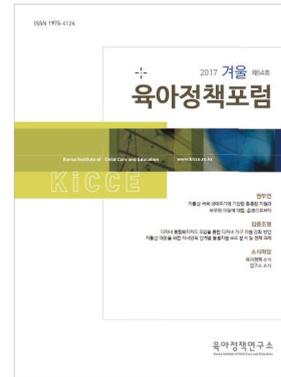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11(4)	2017.3.14	The impact of expected child-rearing expenses on childbirth based on the matching of two Korean panel data	Eunseol Kim(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eong Hyeok Moon(Center for Economics of Human Development University of Chicago) Jeong Rim Le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Yoon Kyung Choi(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amhee Do(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ongha Le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5)	2017.3.14	Enhancing social-emotional well-being in young children through improving teach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nd curriculum design in Hong Kong	Lawrence T. Lam(Faculty of Health and Graduate School of Health,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Emmy M. Y. Wong(School of Nursing, The University of Hong Kong)
11(6)	2017.3.23	Classifying Korea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Jeong Rim Lee(Fundamental Research and Statistics Tea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Gilsook Kim(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ahmyook University) YeJin Yi(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Research Tea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hinyeong Song(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Research Tea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Jinmi Kim(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11(7)	2017.7.11	Enhancing the quality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Singapore: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Ching Ting Tan(Faculty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11(8)	2017.7.11	The practice architectures of middle lead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Karin Rönnerman(Department of Education and Special Education, University of Gothenburg) Peter Grootenboer(School of Education and Professional Studies, Griffith University) Christine Edwards-Groves(School of Education, Charles Sturt University)

호수	발행일	논문제목	필자
11(9)	2017.9.20	Policy-based instructional reform in early education: how US HeadStart teachers perceive instructional mandates	Jennifer Wallace Jacoby(Department of Psychology and Education, Mount Holyoke College) Nonie K. Lesaux(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1(10)	2017.10.23	Challenges in identifying and serv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Dodoma, Tanzania	Phidea H. Mapunda(Umonga Secondary School) Abich D. Omollo(College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Dodoma) Theodora A. L. Bali(St. John's University of Tanzania)
11(11)	2017.10.24	Early childhood educator' perspectives on how infants and toddlers learn: Australia and China	M. Li, B. Nyland(RMIT University) K. Margetts(University of Melbourne) Y. Guan(Beijing Normal University)
11(12)	2017.11.3	Online childcare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who participates, what is offered, and on which topics the workforce is focusing	Debra J. Ackerman(Educational Testing Service)
11(13)	2017.11.28	The importance of emotional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from birth: a case for the evidence-based emotional cognitive social early learning approach	Donna K. Housman(Bos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1(14)	2017.11.28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eachers and early education programs during school entry in Norway: associations with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success in the first year	Kyle DeMeo Cook(Lynch School of Education, Boston College) Eric Dearing(Boston College) Henrik Daae Zachrisson(The Norwegian Center for Child Behavioral Development & Center for Educational Measurement at the University of Oslo)



●●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포럼은 육아 관련 현안 정책과제를 분석하는 '집중조명'과 국내외 육아정책동향을 담는 '정책동향' 등으로 구성된 계간지이다.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51호	2017. 3. 15	권두언	부모됨의 가치와 행복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가정 내 양육 지원정책 개선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정책동향	청탁금지법 시행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김아름 부연구위원
			네덜란드의 육아지원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에 따른 시간제 이용 구축	강은진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52호	2017. 6. 30	권두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야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창의성증진을위한양육환경조성방안	도남희 부연구위원
			2세 사교육 실태에 기초한 정책 시사점	김은영 연구위원
		정책동향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권미경 부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호수	발행일	구분	제목	필자
53호	2017. 9. 30	권두언	육아정책, 새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기대한	우남희 소장
		집중조명	해외 아동수당 도입사례	김나영 부연구위원 김아름 부연구위원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과제	최윤경 연구위원
			정책동향	문재인 정부의 육아정책 관련 국정과제 현황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54호	2017. 12. 30	권두언	저출산극복 생애주기에 기반한 촘촘한 지원과 부모와 아동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백선희 소장
		집중조명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최효미 부연구위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양육 단계별 돌봄지원 수요 분석 및 정책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소식마당	육아정책 소식	출판홍보팀



## ● 유아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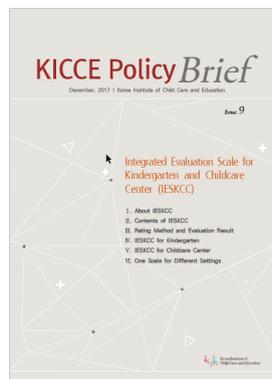
유아정책 Brief를 통하여 유아교육·보육과 관련하여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현실성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56호	2017. 3. 20	청년 미혼자에게 결혼이란	최효미 부연구위원
57호	2017. 4. 20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을 넘어선 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권미경 부연구위원
58호	2017. 6. 20	입양가정, 편견을 넘어 아동의 행복으로	배윤진 부연구위원
59호	2017. 7. 20	행복한 영유아를 위해, 이제는 교사의 행복을 돌아볼 때	강은진 연구위원
60호	2017. 9. 10	영유아 교육·보육 질 모니터링의 국제동향 및 시사점	최윤경 연구위원
61호	2017. 11. 3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균형 배치와 질 담보 되어야	유해미 연구위원
62호	2017. 12. 10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수급대책은?	이정림 연구위원
63호	2017. 12. 20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	최은영 연구위원

## ● KICCE Policy Brief

KICCE Policy Brief는 한국의 육아정책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쉽게 서술하여 해외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영문 간행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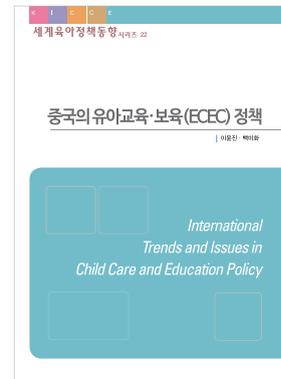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9호	2017.12.10	Integrated Evaluation Scale for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IESKCC)	박원순 부연구위원



### ●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세계 주요 국가의 육아정책 동향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집필한 간행물로, 육아정책 연구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호수	발행일	제목	필자
20	2017.11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	양미선 부연구위원
21	2017.12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도남희 부연구위원
22	2017.12	중국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이윤진 연구위원 백미화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학원 연구원



I. 연구소 소개

II. 2017년도 주요연구

III. 2017년 주요활동

IV. 2018년 추진계획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7  
ANNUAL  
REPORT**

# IV

## 2018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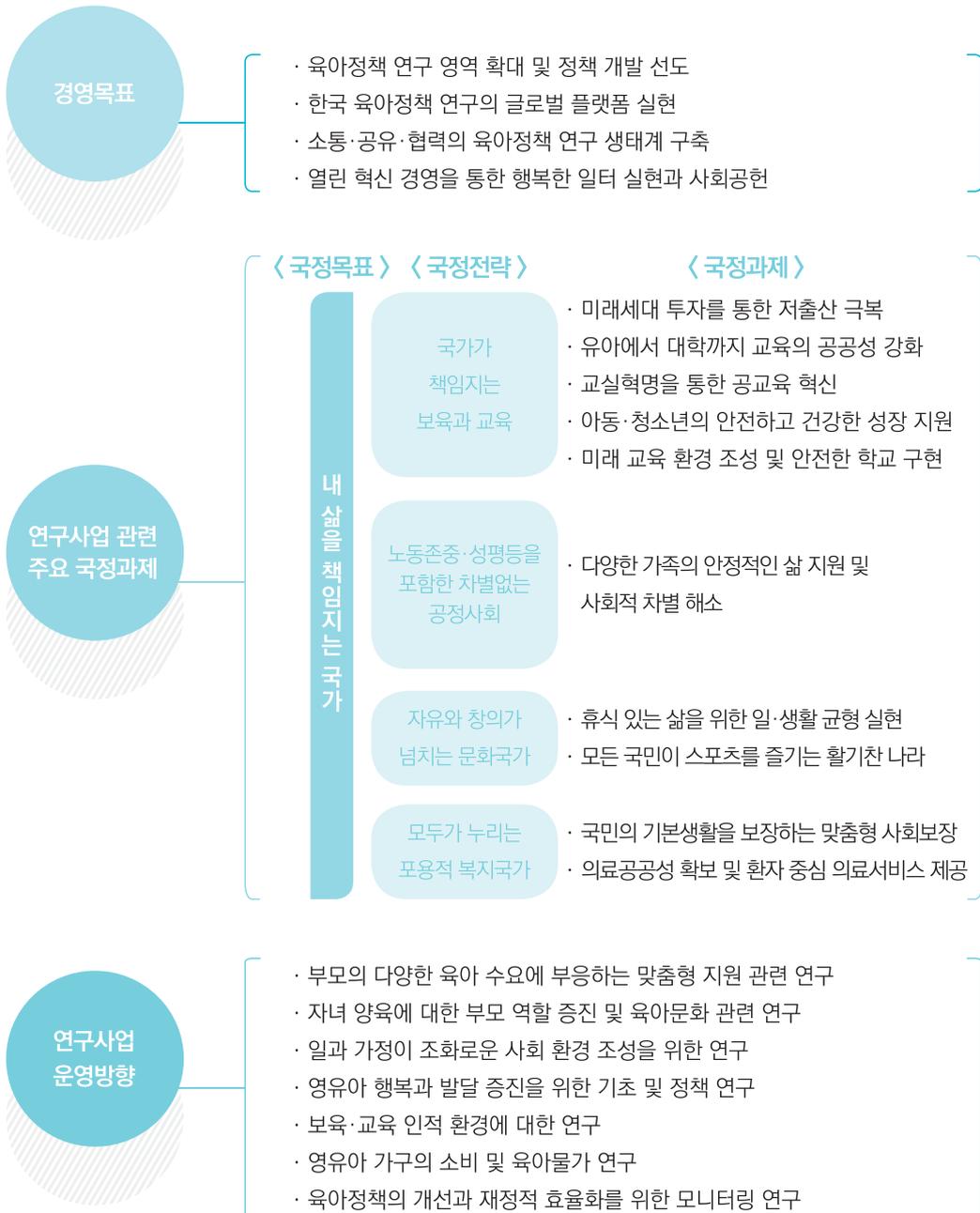


영유아와 부모가 행복한  
육아정책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중점연구사업  
2018년 사업개요  
2018년 연구사업 총괄표

## 2018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



# 중점연구사업

## 중점연구사업 선정기준

- 연구기관 고유 목적 및 미션과의 부합성
-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 현안과의 연계성: 시의적절성, 정책 중요도, 정책 활용성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1): 교사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자격과 양성제도 등의 시차가 다르므로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교사 격차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출발점 평등 실현을 위한 순차적 정책 방안을 담은 로드맵 연구가 필요함.</li> <li>- 이에 본 연구는 유아 교사 격차의 실태 분석 및 원인 파악, 유아 교사 격차가 유아교육의 질 및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탐색을 통해 유아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하고자 함.</li> <li>·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관련 제도 및 기초 통계 분석</li> <li>-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분석</li> <li>- 유아 교사 관련 해외 사례 분석</li> <li>- 유아교사 격차에 대한 인식 분석</li> <li>- 유아 교사의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li> </ul> </li> </ul>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 양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정부의 노력으로 일·가정 양립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 일·가정 양립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일·가정양립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li> <li>-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교대제,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가정양립 방해하는 근로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친출산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li> <li>·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유형 및 정책 분석하고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지점 파악</li> <li>-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중소기업 근로자, 교대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 근로자의 근로환경 분석</li> <li>-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실태 파악</li> <li>- 일·가정양립 해외사례 파악</li> <li>-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근로자의 지원 요구 분석</li> <li>-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결방안 모색 및 제안</li> </ul> </li> </ul>

## 중점연구사업

중점연구사업명	요약
<p>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신설 및 폐원 원인을 규명하여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적정 공급 수준을 예측하고자 함.</li> <li>·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정책 추진 현황 검토</li> <l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 추이 파악</li> <li>- 어린이집·유치원 신설과 폐원 추이 및 원인 파악</li> <l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정책 쟁점 및 문제점 진단</li> <li>-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 방향성 제시</li> <li>- 어린이집·유치원 수요 예측 및 적정 공급 수준 추정</li> </ul> </li> </ul>

# 2018년 사업개요

## ● 기관고유사업

### (1)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 : 교사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자격과 양성제도 등의 시차가 다르므로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교사 격차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출발점 평등 실현을 위한 순차적 정책방안을 담은 로드맵 연구가 필요함. 이에 유아 교사 격차의 실태 분석 및 원인 파악, 유아 교사 격차가 유아교육의 질 및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탐색을 통해 유아 교사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하고자 함.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저출산 대응의 핵심 과제인 아동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부모 수요에 부합하고자 함.
3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누리과정,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저출산 대책 등 제반 육아정책의 재정 확보 및 분배를 위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및 관련 당사자 간 거버넌스 실태 및 개선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전국적인 수준에서 육아정책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분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4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저출산 해소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양육 및 보건의료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가정 양육의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부문의 양육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가정 내 보육 지원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6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유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성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견하여 사회인식 개선과 정책입안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사업개요

번호	과제명
	개 요
7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지방 지방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종합·분석·평가 위해 지방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진단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8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교대제, 특수고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가정양립 방해하는 근로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친출산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함.
9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신설 및 폐원 원인을 규명하여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적정 공급 수준을 예측하고자 함.
10	한국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 구축 방안
	저출산 극복 노력에 있어 지역사회 환경 조성의 중요성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형 아동친화도시 구축의 원칙 및 방향 수립 및 수요자맞춤형 아동친화인증도시' 구축 방안 마련하고자 함.
11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8 본조사 수행 사업보고서
	OECD 교육기술국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최초의 국제 프로젝트 「TALIS 국제 유아교원조사」 1주기 사업(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5~2019년)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아교원 데이터를 산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18년 전국 유아교원 대상 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고 이행하고자 함.
12	수시연구사업
	정부정책 수립, 국내외 동향분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 (2)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KICCE 육아정책토론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육아정책 현안 발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육아정책 추진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2	학술활동 및 저널 발간
	과제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 국내외 학술지 발간사업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학술정보자료의 지속적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하여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위상 제고를 도모함.
3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및 협력
	'아시아지역 육아정책연구의 선도기관(The ECEC Hub of the Asia region)'이라는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정책연구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제기구 및 유관해외기관과의 네트워킹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해외 인지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육아정책관련 국제비교 협동연구 및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함.
4	국내·외 육아연구 동향 및 정책 정보 수집 분석
	국내외 육아정책 최신 연구동향 및 관련 문헌과 전자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국내 육아정책 자료의 데이터 뱅크 역할을 수행함.

### (3)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연구기획사업
	연구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영향력 증대, 육아정책 전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경영목표 추진·관리, 기본·수탁 연구과제 운영·관리·지원, 연구사업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계약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사업의 윤리성·공정성 확보 추진, 기관 자체평가 연구, 산·학·연과 연구협력 등을 추진함.
2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홍보사업
	연구사업 결과를 다양한 자료로 산출하여 정부부처, 육아관련 기관,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함.
3	연구지원전산 운영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전산관련 물품 등 구매 지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 2018년 사업개요

## ●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미혼모·부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실태를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 육아지원 정책을 분석 후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건강수준 측정 및 국제비교
	유아기 건강 정책의 수립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 건강 수준과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하고자 함. 측정된 우리나라 유아의 신체 건강 및 신체활동 수준을 타국과 비교하여 유아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3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육아정책에 대한 대국민의식 조사를 2017년 1차년도 조사자료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차년도에 이어 정책적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각 정책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현 정부 육아정책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정책의 이행 및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매년 부가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또는 현안 연구들을 수행하여 부처가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여 육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5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
	본 연구는 총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조사하는 형태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영유아 가구 소비실태조사'는 영유아 자녀 가구의 전반적인 소비 형태 및 양육비,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율 및 이용비용, 정책 활용도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육아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육아 서비스 지원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연차별 연구수행을 통해 육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 예측 및 장기 수급 전망 등을 통한 균형 발전 전략 수립하고자 함.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영유아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고유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의 현황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6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닿지 않았던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의 요구도를 분석하고, 기존 부모교육의 내용이 포괄하지 못하던 형태의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하고자 함. 기존 부모교육의 제공 형태가 포괄하지 못하던 부모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 개발된 가족특성별 찾아가는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문제점 보완하고자 함.

번호	과제명
	개요
7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기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이미 검증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현장에 확대 및 보급을 통하여 교사들의 자기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의 개정과 보급용 전산 구축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5세 유아들의 연령별 누리과정 효과성 파악을 비롯한 기관유형별, 교사유형별, 유아 가족 특성별 등에 따른 누리과정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8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아태지역 육아정책 분야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1) 지원우선 국가의 육아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지원우선 국가(선정국)의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와 과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며, 3) 유관한 국내외 제반 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컨설팅 모델을 개발하고 세부과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 브랜드화를 도모하고 SDG 4.2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I)
	어린이집 평가에 기초한 컨설팅 지원 연구 중 3차년도 연구로 2017년 10월 이후 최초로 통합평가지표를 적용한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2차년도까지 개발된 컨설팅 모형을 시범 운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로의 컨설팅 모형과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 (한국아동패널 II)
	빅데이터의 축적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이 출생 후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치고 성장하면서 어떤 발달 특성을 보이는지, 가정에서의 양육과정, 기관 및 학교에서의 형식·비형식 교육 경험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또한 그 자료를 축적하여 출산, 효과적인 양육 및 육아지원과 아동 발달에 대한 횡단적·종단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계 연구의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11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등 운영 유지보수 웹방화벽 및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을 통하여 정보보안 강화
12	전산실 운영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원활한 하드웨어 운영을 위한 온도 유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유지

## 2018년 연구사업 총괄표

구분	번호	연구과제명
기본	1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해소(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Ⅰ):교사를 중심으로
	2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3	육아정책 재정조달 거버넌스 연구
	4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
	5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
	6	4차 산업혁명 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7	지방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 재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8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방안 연구
	9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10	「한국형 아동친화도시(Korean Child Friendly City, KCFC)」 지역사회 구축 방안 연구
	11	OECD TALIS 국제 유아교원 비교 연구 - OECD TALIS Starting Strong Survey 2018 본조사 수행 사업보고서
일반	1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Ⅳ):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방안
	2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Ⅲ): 유아기 신체건강수준 측정 및 국제비교
	3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Ⅱ)
	4	2018~2022 육아정책 분석과 과제
	5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및 육아물가 연구
	5-1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조사
	5-2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5-3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6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
	7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8	아태지역 육아정책 개발협력 수요 분석 및 실행 방안 연구	
9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Ⅲ)	
10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8(한국아동패널 Ⅱ)	



I. 연구소 소개

II. 2017년도 주요연구

III. 2017년 주요활동

IV. 2018년 추진계획

# 2017년도 KICCE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7 Annual Report

---

발행일 2018년 4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 화 02 398 7700  
팩 스 02 398 7798  
[www.kicce.re.kr](http://www.kicce.re.kr)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 786 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Tel. 02 398 7700 Fax. 02 398 7798 [www.kicce.re.kr](http://www.kicce.re.kr)